

시작 할 사람!!



지원자격

1. 만나라당일 것.
 2. 남자여야 할 것.
 3. 부정부패 OK.
- (성폭력 유무 관계없음)

※ 금품살포에 능한 자 우대

백표지 design 정대리

수기 & 감상문 모집

여학생잡지 HerStory에서 독자 여러분의 수기와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11월 10일까지고, 보내실 곳은 alicekhy@freechal.com입니다. 다음호 수기 주제는 '실연 이야기'입니다. 감상문의 추천도서, 음반, 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도서/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 집, 삼인 아주 작은 차이, 일리스 슈바르처 저, 이프 유리 천장 통과하기, 수잔 클란트, 캐롤 겔러허 공저, 현암사
음반/1집 Feminist Singer, 지현 영화/초콜렛, 라세 할스트롬 감독

부산대여학생잡지

VOL 2 가을호 2002.09.24

HerStory



특별기획
쾌락과 폭력사이

나의 아픈 화력과 섹스

대천 여자들의 답답한 이야기 / 감히 누가 섹스를 말하느냐
여성의 3인칭장, 성숙, 성욕을 위한 희망의 불씨 멘토링

인터뷰

공익소송제의 미약과 배후자 변호사를 만나다

문물라는 옷에 자유의 옷을 입혀라 / 보일러 발행인, 강선제
의로운 이웃을 꿈꾸는 그녀, 웹진의 의린사회

특별기고

해운대 지역 문화해설자 조사를 하려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 관장 / 미술사 / 여성성의 재현을 보고서

칼럼

여자의 생리대, 남자의 밤

3월 선거를 통해 꾸려진 HerStory 총여학생회는 5월에 「특별주간 - 몸과 성을 말한다」를 열었고, 여학생잡지 HerStory잡지도 만들었습니다. 「특별주간 - 몸과 성을 말한다」는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콘돔서약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여러 강연회와 전시회는 몸과 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과들을 직접 돌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몸과 성에 대해 타일에 표현한 작품 120여 점을 받아 이를 중앙도서관 계단에 설치했고, 「창작집단 가치」에서 몸과 성에 대한 주제로 전시회도 함께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일상의 공간에 예술작품전시회를 통해 색다른 공간으로 창조하여 우리의 몸과 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술학과와 연대하여 학교 앞 전시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하여 학생징계학칙 제정할 것이라는 학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항의의 퍼포먼스로 시계탑에 십자가박기와 물풍선던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시장선거에서 제기된 안상영 시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부산지역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대책위 활동과 함께 여성문화인권센터와 함께 부산 해운대지역의 성매매실태를 조사하고, 새움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에 둔 성폭력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몇장 실었습니다.



함 쏘세요~ 오늘은 공짜

더운 여름날을 더욱 덥게 만든 박재운 총장님의 [학생징계학칙 제정] 기타등등. 문이발 총장님의 회심의 카드들을 그림에 펼쳐 놓고 물풍선을 옆에 두었다. 함 쏘세요~ 오늘은 공짜. 지나가는 학우들 시원하게 물풍선을 던졌고, 그중 환영환림은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는데.

몸과 성?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 과를 돌면서 간단한 성교육(?)을 했고 그 이후 각자가 생각하는 몸과 성을 타일그림으로 담았다. 총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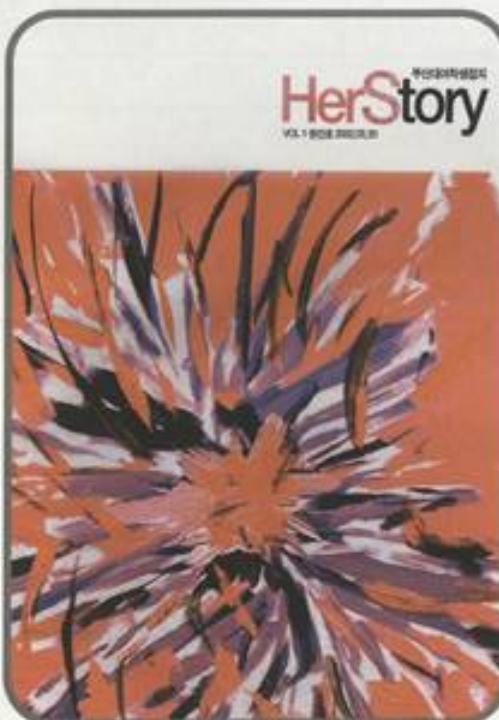
피임법을 알려드립니다

콘돔서약식 옆에서는 조근조근 피임법 설명이 이어졌다. 지나가던 학우들 발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들었고, 이것저것 질문도 했다. 피임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



HerStory 창간호!

부산대 여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잡지. 분사시한 분홍색 표지때문에 화장품 소개잡지로 오인받기도 했었다.



행복은 성(性)적 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性)적 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주제로 중도 로비에 세 작품이 전시되었다. 초콜릿 엉덩이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도구로 사용해 몸을 표현한 이 작품. 창작집단 가치가 작업을 했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애도하며 십자가를 박다

학생징계학칙 제정은 학내의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시도였다. 죽음을 의미하는 하얀십자가를 정문 근처에 있는 시계탑앞에 박았다. 많은 학우들이 함께 했고, 그 위에 각자의 이름을 달았다.



남과 여, 상대방의 몸과 마음의 공략법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강의. 끝나고서 가르침(?)을 구하는 딸이 쏘드했다는 후문.



나의 아픈 과거와 섹스

카우

이 이야기는 나의 경험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나의 치부라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털어놓는 이유는 나 같은 경험을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섹스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 준 사람들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난 좌충우돌하며 많은 것을 겪게 되었다. 물론 경험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 배워가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들을 많이 치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쓰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주저없이 쓰고 있다.

내가 처음 섹스를 한 것은 1학년 여름이나 가을쯤 되는 것 같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학년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고등학교 때도 나는 순결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과서도 선생님들도 엄마나 아빠도 나에게 순결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동시에 섹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 해준 사람도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친구가 섹스란 여성의 질에 남성의 페니스가 삽입되는 것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더럽고도 충격적이었던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내 기억 속에서 섹스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이다. 따라서 내가 직접 섹스를 해보기 전까지 나에게 섹스에 대해 가장 많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준 것은 책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나는 많은 책 속에서 이런 저런 섹스에 대한 경험들을 했고 그 책에서조차 순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오히려 책 속에서는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했고 언젠가 꼭 한번 경험하고 싶은 행위로 섹스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경험 정도로 생각하게 했다.

대학교에 들어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정말 순진했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어쨌든 내가 사랑한 사람은 전복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3년 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북에서 가끔은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전남 사람이고 난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에서 만나면 난 그 사람의 자취방에서 잠을 잤고 서울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여관에서 난 나의 집에서 잠을 잤다. 물론 중간지점에서 만나면 둘이 같이 여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관침대를 많이 하게 되었다. 섹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곳이 여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난 언제나 그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면 6시쯤 일어나서 그 사람이 묵고 있는 여관방에 찾아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3일정도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생신분에 돈이 없었던 우리는 그리 자주 볼 수 없었다- 그 3일의 1초가 아까웠고 그 사람과 되도록 같이 있고 싶었다.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러 여관방에 갔던 난 그 곳에서 그렇게 첫 섹스를 하게 되었다. 나에게 첫 섹스의 기억은 별로 없다. 그냥 어찌다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했다. 섹스에 대한 기억은 하나 없이 섹스가 끝난 다음부터만 선명한 기억이 난다. 섹스 후 길을 걷는데 오리처럼 뒹둥거리며 걷던 내 모습. 첫 삽입 때 조금 아팠던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아프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나는 걸으면 서까지 아픈지는 몰랐고 한 한시간을 그렇게 뒹둥거리며 걸어다녀야 했다. 그것이 나의 첫 섹스에 대한 기억의 전부이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의 첫 섹스는 최악의 섹스였다. 그것의 증거는 섹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 시간 정도나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나처럼 첫 섹스를 아프다고 하니까 다 아프려니 하고 넘어 간다. 하지만 첫 섹스를 꼭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녀막*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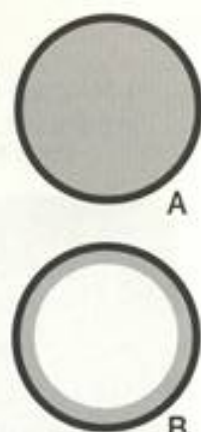
처녀막은 둥글 들어가는 할 무엇인가가 아니다. 처녀막은 질 구멍의 외곽의 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원형이 아니라 도넛스 형이 되는 것이다. 오른 쪽의 그림에서 A형이 아니라 B형처럼 생긴 것이 처녀막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A형처럼 생겼다면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생리를 할 수 있을까? 질이 문처럼 생겼기 때문에 처녀막을 열어주었다고 닫아주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부분 처녀막하면 A형을 떠올린다. 그래서 첫 섹스는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절대 아니다. 굳이 아파야 할 필요가 없다. 남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가 처음이라는 것을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성이 준비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첫 삽입을 한다면 크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처녀막 또한 신체의 일부분이라 생긴 모양이 다 달라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여성이 첫 섹스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처음이라는 것을 배려해서 충분한 전화를 통해서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많아지고 질의 상태가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삽입한다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다. 그리고 심지어 처녀막이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섹스 때에 많이 아팠고 이후에도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섹스를 했구나' 하고 느끼면 된다. 나처럼 섹스 뒤에 한시간 정도나 아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난폭하게 섹스를 한 것이다.

난 아픈 것이 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아픔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그 상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처녀막* 처녀막은 질구의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막고 있는 피부막으로, 정상적 처녀막도 그 크기와 모양, 두께 등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처녀막이 없거나 작거나 기타의 종착에 의해서 처녀막이 성 경험과 관련 없이 손상될 수 있다.



섹스

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는 거의 천지차이었다. 아마 우리는 섹스를 하자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관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키스를 하고 등등으로 자연스럽게 섹스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나 서로가 섹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3년을 사귀면서 한번도-가끔씩 너랑 자고 싶어 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없었다. 내가 먼저 섹스를 하고 싶다고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연히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었다. 피임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난 전혀 무지했다. 섹스가 지나가면서 생리 시작하기 전 일주일 끝나고 난 뒤 일주일 정도가 피임기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것 이외에 피임을 한 적이 없었다. 왜 난 그때 피임법에 대해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3년을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섹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이 더해져서 그랬던 것 같다-그렇게 3년을 지냈다. 딱 한번 그 사람이 나에게 '피임은 해?'라고 묻는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말이 당황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피임에 대해 묻고 있는지를 몰랐다. 피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가 피임은 내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는 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보다 두 살이나 많은 사람이고 남작니까 섹스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그 사람이 1학년인 나에게 피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넘기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짜증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섹스의 일부분인 그 이야기가 넘 부끄러워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부끄러움이라는 유만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3년 동안 피임다운 피임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여기서 피임*다운 피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가장 잘못된 피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질외사정법**에 대한 생각들이다. 사람들은 질외사정을 피임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임법이라고 하면 일정정도의 피임률이 나와야 피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질외사정은 그러한 수치 정도의 피임률이 나오지 않는다. 정자는 사정을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섹스를 하다보면 윤활액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액들이 나오는데, 남성에게서 나오는 액에 정자가 포함되어 있고, 재수가 없으면 이 액에서 나오는 정자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초체온법/리듬조절법/점액관찰법** 등으로 피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배란기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몇 달간 자신의 몸을 꾸준히 관찰하여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쉽지가 않고, 또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아무리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방법 다 정확하게 배란 일을 알아내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세 가지의 방법만으로 피임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00% 완벽한 피임은 없다. 피임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한다.

그 두 가지 이상의 방법 중에서 한가지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콘돔사용이고, 이러한 콘돔사용과 함께 같이 병행하면 좋은 것이 기초체온법/리듬조절법/점액관찰법이나 살정제 사용이다. 기초체온법/리듬조절법/점액관찰법과 살정제는 각각 한가지만으로는 극히 낮은 수치의 피임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콘돔과 같이 사용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피임률을 가져 올 수 있다. 먹는 피임약의 경우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하며 이를 이상을 먹지 않았을 경우 피임의 효과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으로는 콘돔이 적당하며, 콘돔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한 살정제나 리듬조절법 등을 같이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외국에서는 실제 콘돔의 피임률이 97-95%까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한국의 콘돔이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콘돔 사용에 있어 정확한 사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콘돔을 사용하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성교 시 항상 새 콘돔을 이용한다.
2. 포장을 뜯은 후 구멍이 난 곳이나 찢어진 곳이 없나 확인한다.
3. 남성의 성기가 발기해서 단단해지자마자 즉, 삽입하기 전에 콘돔을 씌운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삽입하는 것은 질외사정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콘돔을 사용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삽입하기 전에 반드시 콘돔을 씌워야 한다.
4. 정액받이(앞쪽 끝부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밀착시켜 공기를 빼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의 성기에 끼워야 한다.
5. 성교가 끝나면 발기가 가라앉기 전에 콘돔의 테두리를 잡은 채 여성의 성에서 페니스와 콘돔을 같이 빼낸다.

대학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다운 피임법은 콘돔밖에 없다. 배란기를 피해서 살정제와 같이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콘돔을 사용할 때 콘돔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피임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임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스스로 먼저 피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인끼리

섹스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금의 상황에서 피임을 해야 하니까 콘돔을 사용하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다. 나도 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하지만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여성이다. 남성도 임신에 따른 여러 가지의 충격을 받게 되겠지만, 여성이 받는 피해는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해도 상당하다. 나의 애인 중 한 명-당연히 첫 섹스의 상대는 아니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네 몸이 상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술을 한다면 니 몸이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임은 해야한다.' 자칫하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치명하니까 섹스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동시에 져야 하는 것이며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배려는 당연한 것이다. 피임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남성은 기본적으로 당신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임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는 것으로 아마 만사 오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알고 있고, 질외사정으로 피임을 하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절대 안된다. 질외사정법은 일에서도 실패했듯이 피임법도 아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른 피임법을 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피임법은 별로 없다. 콘돔정도 밖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다. 콘돔은 성감이 이상하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들을 설득해서 콘돔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여성의 몫이다. 피임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질외사정이나 기타 피임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콘돔을 사용하게 하려 만드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몫이라는 예지다.

우선은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남성과는 절대 섹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 피임을 하지 않거나 여성에게 방기하는 남성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성이며 이것은 동시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피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좋은 쪽으로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피임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식의 태도나 콘돔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성감이 안 좋아진다' 등의 말로 거부한다면 상충하게 다시 설득해야 한다. 임신을 했을 때 결국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여성이다. 물론 남성도 걱정은 하겠지만, 그 충격의 정도에 있어 여성과 비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임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하라. 그렇게 설득해도 피임을 하지 않겠다는 남성은 과감하게 차라. 그 남자는 당신의 몸이 망가지든, 충격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남성이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 남성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당신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싸수가 노란 남성이라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좋은 사람에게 당신의 희생이 값있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피임을 거부하는 남성은 당신의 희생의 값어치를 전혀 모르는 남성일 것이다. 여성이어!! 당신을 좀더 소중히 생각해라. 당신의 몸을 좀더 소중히 다루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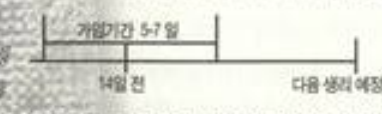
1. 기초 체온법

기초 체온법이란 배란기간 중에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현상을 알아내어 배란기간 전후 동안 성교를 자제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방법. 배란 후에는 황체호르몬이 생리적으로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체온이 0.3℃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아지는 상승기간이 가임기간이다. 그러나 기초체온법은 매일 아침에 체온을 측정하여 그래프에 기록해야 하고 배란전의 불임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정자는 72시간을 살다)는 수월하므로 배란일전에 성교를 했다 할지라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점이 있다.

2. 점액 관찰법

배란주기에 따라 자궁의 경부점막에 분비되는 점액의 혼탁도와 점도의 정도에 의하여 배란일을 예측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방법. 배란되기 수일 전부터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 초기에는 희고 끈끈하고 접착성이 있지만, 차츰 색깔이 옅어지 배란 24시간 전에는 달걀 흰자와 같이 투명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이 나온다. 그리고 배란 후에는 다시 흰색으로 변하고 점액분비도 줄다. 따라서 점액이 분비되는 날부터 투명한 점액이 분비되는 날 다음의 3일간 정도만 성교를 피하면 피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냉과 같은 다른 질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액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점액관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은 피임을 하지 못 할 전부터 점액을 관찰하고 확인하여 배란 일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궁이 생각한 배란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배란일이라고 생각한 날에서 14일 후에 월경이 시작하면 배란일을 맞춘 것이다.

3. 리듬 조절법

여성의 배란기간을 예측하여 이 기간동안 성교를 피함으로써 임신을 하지 않는 피임법. 

성 가루로 과산하여 14일 전 되는 날에 된다. 따라서 배란일을 중심으로 2-3일 전후 합계 5-7일 간은 가임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하면 피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리듬 조절법은 여성에 따라 월경주기 일수가 다르고, 또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배란일 계산이 용이하지 않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피임법은 아니다.

4. 살정제

살정제란 성교하기 전에 질 속에 넣는 피임약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경우 살정제의 효과는 매우 높으며, 여기에 콘돔을 병행할 경우, 피임효과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살정제는 사정 후 정자가 질에서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5. 먹는 피임약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을 억제하여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제입니다. 경구피임약의 장점은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성생활이 안정되어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성숙한 가정주부에게 적합한 약입니다.

6. 페이둠

여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콘돔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자의 콘돔과는 모양과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페이둠이라는 여성용 콘돔을 통해서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 여성 스스로가 임신 및 성병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임기구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시판되지 않습니다.

7. 난관 피임수술(영구피임법)

난관피임수술은 난관을 영구적으로 묶거나, 절단하여 난자와 정자의 만남을 차단시키는 방법. 한편 수술의 실패로 임신이 되는 경우나 임신 된 것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 자궁의 임신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골반강 내의 불편감이라든가 난소에 종양이 생기거나, 월경이 많아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8. 자궁내 삽입장치(IUD)(영구 피임법)

흔히 루프(loop)라 불리는 것을 자궁 내에 삽입한다. 자궁경부 또는 자궁 근육의 균형을 깨뜨려 난자나 정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궁 내에서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하혈이나 하복부 통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1980년 대 들어와 미국에서는 사용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9. 응급피임약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지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 즉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함.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복합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방법인데, 성교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면 된다. 피임률은 약 75% 정도로 4명중 한 명은 임신이 될 수 있다. 또한 생리적으로 고용량의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기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응급의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2. 콘돔 사용

아주 얇은 고무 주머니를 남자의 음경에 끼워 정자가 질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 콘돔은 천연 고무제품으로 만든 주머니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피임의 효과도 크다. 콘돔은 남성이 피임을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인다.

3. 정관 수술(영구 피임법)

정관 수술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의 일부를 막아서 정자의 생산은 계속 이어지지만 정자의 체외 배출을 막아 임신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수술방법의 발달로 칼을 대지 않고 음낭(고환 주머니)에 작은 구멍만 내어 그 구멍을 통해 정관을 밖으로 꺼내어 묶은 후 다시 원위치시킨다.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2일 후에는 목욕, 1주일 후엔 성생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 피임법이기에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액 중 정자의 양은 1%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정액이 감소한다는 것과 정력이 줄어들다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이며, 또한 발기기능은 음경해면체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술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질외사정법

성관계 도중 사정하기 전에 음경을 질에서 꺼내 여성의 질 밖에서 사정하는 것.

피임

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되었다. 그렇게 3년 동안 피임 한번 없이 섹스를 했으니 결과는 뻔하다.

결국 나는 흔하디 흔하게 낙태*수술을 받게 되었다.

내가 모성애가 많은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평생 두고 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생리가 없어진 것도 몰랐다. 그냥 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헛구역질을 했다. 애연가인 나는 주위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다. 빈속에서 담배를 피우면 헛구역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나도 몇 번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번은 뒀장찌개 냄새를 맡는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 왔고 그 순간 임신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배에게 말을 했다. 말을 하면서 나의 무지는 다시 까발려졌다. 난 당시 급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2주 뒤에 받았다고 말했다가 선배에게 혼났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임신 초기에 태아는 하루에 자신의 크기 몇 배로 성장을 한다. 따라서 수술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여튼 난 선배와 같이 산부인과에 갔었고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최악의 날을 보냈다. 그 날 나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10분만에 소수 한 병을 마셨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추근거리려 난 그 아저씨를 피해서 30분을 전전 주주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선배의 도움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리고 최악의 경험은 내 자궁에 있던 세포덩어리인 태아와 대화를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날 끝임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머리 속으로 나의 자궁에 있는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 말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선배 집에서 7시간을 웅얼었다. 그것도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 그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슬플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발랑까진 한 아이의 경험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내 선배, 내 동생의 친구, 내 후배, 내 후배의 친구 등등. 여성운동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면 난 '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낙태는 신기하거나 특별한 어떠한 성질을 가진 누군가만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고 피임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다가 섹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없이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

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 주는 충고가 있다. 그것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낙태의 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우선은 임신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는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4천원에서 5천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본 테스트기도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능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 임신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보통은 임신이 확실하면 그 날 바로 수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병원비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데 태아의 성장도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는 약 2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 병원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수술이후와 관련이 있다. 흔하디 흔하게 낙태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낙태를 하고 난 뒤에도 나름대로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몸조리를 할 장소와 되도록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병원을 선택해서 가면 클 생리날짜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산부인과에서는 어떠한 병이든 진료 이든 간에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다. 낙태수술을 하러 온 것처럼 보여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다. 진료를 하고 나면 수술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대부분 부분마취 수술을 한다. 전신 마취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분마취로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마취 또한 몸에 그리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병원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부분 마취를 할 것인지 전신마취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병원이라 판단하고 다른 병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취를 깨면서 굉장히 아파한다. 이것은 가 진통이라고 해서 실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취가 깨면서 무의식 속에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맞아야 한다. 이 주사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것을 맞는 이유는 낙태수술을 통해서 태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몸은 임신 호르몬을 분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 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태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따라서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더 이상 몸이 출산을 준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한 주사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술이후에 내지는 다음날 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꼭 맞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커지고 적진단단가 등의 외형상에서 약간의 표시가 날 수도 있다. 또 일주일 정도의 치료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수술을 통해 자궁에 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며, 이것을 방지하게 되면 자궁에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고, 며칠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더 좋다. 수술전이나 수술 후에 혼자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기 때문에 약해져 있고, 어떤 일을 벌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꼭 함께 있는 것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더 용이하다. 거기에다 조용한 공간에서 며칠 요양한다고 생각하고 쉬 수 있으면 더 좋다.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낙태를 권장하는 때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수술의 경험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피임이다. 나는 섹스에 있어 오르가즘을 느끼고 어떤 체위가 좋고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섹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임이다. 피임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며 섹스의 필수조건이며 책임이다.

아마 내가 글을 썼던 것 중에서 이 글이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잊고 싶었던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다시 며칠 동안 난 아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의 치부가 공개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난 이 글을 써야만 했다. 난 다른 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여성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이 내가 아픈 과거들을 떠올리면 나의 화려한 과거(?)들을 들추어내면서 이 글을 쓴 이유이다. 내가 선배들로부터 얼마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듣지 못해 배우지 못해 한 많은 실수와 아픈 경험들이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살아갈 여성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자!!

피임을 하지 않는 남성은 나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즉,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자!!

남자에게 당신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의 파트너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1. 가장 먼저 할 일은 여자 친구를 안심시키는 일이다. 여자 친구가 예민한 기간

에 생리를 하려 않거나 임신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스런 상황이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당혹스럽지만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 어려운 상황을 함께 풀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라.

2. 당신도 임신의 당사자임을 받아들이라.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당신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수치심, 여자 친구에게 빚을 수 있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죄책감,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등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제3자가 아니라 여자 친구와 마찬가지로 임신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려고 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면 당신은 또 한번 친구에게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3. 가능한 한 빨리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일의 순서를 정한다.

친구에게 병원에 가지나 약국에서 임신진단 시약을 구입하여 먼저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라. 약국이나 병원에 동행하는 것은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인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4. 원치 않은 임신을 책임지는 과정을 함께 나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낳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수술비 마련하고 함께 병원에 가는 것으로 함께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과정에 어떻게 동참했느냐가 중요하다.

5. 여자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충실하게 들어준다.

당신도 힘들겠지만 임신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자 친구만큼 고통스럽거나 두려울 수는 없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도와주라.

6. 낙태수술의 방법, 수술의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안다.

여자에게 당신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1. 예정된 기간에 생리가 없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임신진단을 받는다.
2. 임신진단을 받았으면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할 것인지 출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낙태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생기기 될 후유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한다.
4. 믿을 만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5. 상대방 남성도 임신과 낙태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 원치 않은 임신을 책임지는 과정을 함께 나눈다. 낙태 수술의 방법, 수술의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알게 한다.
6. 임신사실을 부정하거나 애써 회피하지 말고 현실에 직면해서 최선을 다해 신중히 결정한다. - 자신이 '결정'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기력하게 낙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담
찬 여자들의 담
담한 이야기

감히, 누가 섹스를 말하는가

정리 오즈 oze44@treechal.com

우리 사회는 왜 섹스를 말하지 않을까. 또한 말하는 사람을 되바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섹스를 말할 때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버버대는 정도는 아닌 여자들이 모여, 여성의 성적 쾌락부터 폭력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 '섹스' 하면 얼굴부터 빨개져서 어버버대는 정도는 아닌 여자들
일 시 2002년 8월 18일 오후 6시
장 소 총여학생회실

고운 기왕 이렇게 모였으니, 부끄러워 말고 편하게 다 얘기하자.

반짝 좋지. 생각해봤는데, 보통 다른 일은 다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한국에서 섹스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잘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특히 남자들은 성경험이 없고, 영계일수록 호감을 많이 가지잖아.

순진녀 근데, 영계 찾는 애들도 많은데 진짜 능숙한 애를 찾는 애도 많더라.

서내 진짜 그런 게 아슬바슬러하니까. '그래도 나는 순결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낮에는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를 바라다니.

모두 우~, 진짜 모순이다.

서내 결혼하면 야한 비디오 테이프를 부인이랑 같이 보잖아. 좀 보고 배우라고.(웃음)

반짝 섹스는 단순히 테크닉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과도 관련되어있지 않아? 난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서내 맞아. 글쎄 20대에 하는 섹스랑 30, 40대에 하는 섹스랑 차이가 많데. 20대는 어설피고 외양적인 것, 테크닉에 집착을 하다가 30, 40대로 넘어가면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한대.

쾌락과 폭력사이

하는 순서가 같다?

아른 테크닉이라. 근데 한국 남자애들 섹스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물론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왜 섹스도 사회화된다고 하잖아.

반짝 무하하. 그러고보니 그간 사귀었던 애들, 하는 순서가 같았어!

순진녀, 소리 (눈이 동그레지며) 진짜? 그런 것도 정해서 한단 말야?

서내 정한다기보다 무언의 규칙 같은 거지.

아른 영화나 그런걸 봐도 순서가 있잖아. 참엔 키스를 하다가 허를 넣어봐, 그래서 반응이 오잖아? 그럼 다음단계로 진행해도 된다. 라는 신호야.

반짝 근데 그게 남자 혼자 생각이거든.(웃음)

아른 마저. 암튼 그 다음에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그 다음에 옷 밑으로 손이 들어와, 그래서 만지다가, 대부분 브래지어를 하고 있잖아, 여자가 안도와 주고는 브래지어 밑으로 손이 들어가기 힘들거든. 여자가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 이진 가슴을 허락한 거다' 생각하면서 가슴을 만져, 그 다음에 좀더 진도를 나가면 이제 엉덩이로 가는 거야. 엉덩이를 자기 성기 쪽에 밀착을 시키지, 그래서 몸이 밀착이 되면 거의 다 허락한 거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순서대로 해.

반짝 그래, 그렇더라고.(씩씩 웃음)

아른 게다가 엉덩이와 가슴. 이렇게 여성의 성적 심볼이 정해지면서, 엉덩이와 가슴 뽐향을 좋아하는 거지.

당신의 성감대는?

순진녀, 소리 (호기심 만땅) 근데 실제로 가슴과 엉덩이에서 그렇게 성적 느낌을 많이 느꼈어?

서내 나는 가슴은. 근데 엉덩이는 별로였어.

아른 나도.

반짝 아니 그럼, 성감대가 어디야?

아른 나는 목이랑 어깨.

서내 나는 귀.

반짝 나도 목이 좋더라. 사실 대기만성(대기만해도 성감대)이기는 하지만.(웃음)

고운 나도~

아른 자위를 하면서 느낀건데, 삼입을 하지 않아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반짝 그래 꼭 삼입이 아니어도 되지. 근데 남자들이 삼입강박증이 좀 있지. 암튼 자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자위 안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들 손내리고서 무언의 동의, 잠시간의 침묵)

소리 근데, 어떻게 자위라고 생각해?

아른 클리토리스를 문지른단거하는. 클리토리스는 성기 근육들이 모이는 정점이잖아. 저기를 마찰하면 보통 오르가즘을 느껴. 포로노에서는 여자들이 보조 성기를 집어넣는 걸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 왜냐면 질에는 성감대가 별로 없거든. 삼입만이 오르가즘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반짝 여자도 자위를 할 수 있다. 고 하면 남자들 뒤질어지지 않을까? 여자는 성적 욕구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웃음)

고운 맞아. 진짜 남성중심적이란건, 근데, 자위를 하진 섹스를 하진, 불안하면 그런 느낌이 안 와.

아른 마저. 집중을 해야돼. 집중을 해서 감각을 계속 키워야 되거든. 만데 신경쓰면,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 남편은 위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서 부인은 저녁밥 뒤 먹지, 이런 생각하는 장면들 있잖아.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사랑하는 남자라도 말아야. 몸만 내주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 느낌도 안 난단 말이야.

서내 그런 면에서 보면 오르가즘은 막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니깐.

이게 데이트 강간이라구?

고운 더더군다나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강요당하면 불쾌하기까지 하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말이야.

반짝 앗, 그것은 바로 데이트 강간?

순진녀 잠깐! 데이트 강간의 정확한 개념이 뭐야?

반짝 정확한 개념? 말하자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한쪽에서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 특히 나이 차가 나는 커플에서 잘 일어나지.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나이가 어리면 정확히 자기 뜻을 표현하기 힘들잖아.

서내 난 데이트 강간당할 뻔했다. 어느 날 애인이 술에 취해서 있는데, 뽀치에서 키스를 했거든. 그날 난 몸이 안좋아서 '자, 이제 여기서 그만' 이렇게 말하고 뿌리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센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 이게 바로 데이트 강간이야.' 이러니깐 '아,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

고운 내가 아는 커플은 꼭 커플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더 많고 또 여자가 1학년 때부터 사귀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여자에게는 반말도 못하게 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되나. 근데 학회실이나 그런데서 자꾸 만지고 그러는 거야. 여자에도 좋으면 말을 안하는데, 여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남자가 계속하는 거야. 그런 광경이 워낙 많이 목격되니까 과 사람들 인식도 안 좋고. 물론, 스킨십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럴 때 불쾌해지잖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예스와 노의 구분을 못하는 거지. 싫다고 하면 '스킨십이 싫다고? 난 내가 싫단말이야?'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오잖아.

소리 그래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특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더 더욱.

아른 서내 그럴수록 더 확실치 의사표현을 해야지!

고운 나이 차가 안 나도 잘 안되지. 글구 텔레비전도 문제야. 기습키스 같은 걸 아름답게 미화시키잖아.

소리 그래! (로망스)에서도 김재원이 기습키스를 했잖아. 김하늘은 치마에 라면을 얹었는데도 알람도 못하고, 얼마나 뜨겁겠어.

순진녀 앗, 좋아하는 거 감면해. (웃음)

고운 키스해도 되냐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감지할 수는 있잖아.

반짝 감지하려고만 한다면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여자의 노는 예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도 옛날엔 착한여자 콤플렉스 있어서 싫든 좋든 남친에게 아무런 표현도 못했거든. 애가 좋도록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지나보니까 너무 솔직하지 못했고, 날 아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운 맞아. 여자들도 싫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봐.

반짝 그래. 남자들도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내 근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남자가 안 받아들이면 그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지않을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그럴 때 성관계를 요구를 하잖아.

고운 그렇지. 글구 나는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것이 말초적인 신경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여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몇몇 남자들은 사귀면 바로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순진녀 물론,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갖는 그런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고운 여자의 마음이 미묘한 게 여자도 스킨십을 원해. 그걸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단 말이지. 근데 남자처럼 꼭 성관계(삽입)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키스가 큰 쾌락을 줄 수 있는 거고. 여자가 생각하는 스킨십 정도와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자가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갈래요?' 이럴 때 여자는 정말 차 한잔을 생각하고, 남자는 성관계까지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때에 성폭행이 일어나면 다들 '내가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러거든.

서내 난 불안감을 느끼는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대개는 무섭다고 말해도 대중 넘어가 버린다거나 그러잖아.

반짝 (느끼한 목소리로) '이 오빠를 믿어.' (웃음)

소리 (같은 목소리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 (웃음)

고운 또 분위기에 휩쓸린 섹스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피임기구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피임할 생각도 못하잖아. 대부분의 첫 경험은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서내 저절로 놓고 보자는 거지.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이 여부를 두고 엄청 불안해하잖아.

아른 장난아니지. 글고 대개는 불안해하면서도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살 생각도 잘 못하잖아.

서내 여자들이 그런 거 정말 모른다니까.

반짝 그런 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

첫 경험은 언제야

순진녀 (약간 머뭇하며) 첫 경험은 언제야?

아른 난 1학년 6월달 즈음?

순진녀 진짜 빠르다. 내 주변에는 순결서약 뭐 이런 거 한 애들도 많단 말 이야. 나도 만약에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애랑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잤다가 나중에 내 남편한테 책잡히고 뭐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야. 그런 경우 진짜 있잖아.

반짝 맞아. 요새도 순결이데올로기가 있지. 글구 얼마 전에 열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 올해 내 친구의 친구가 아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래. 그 사람한테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서.

모두들 경악

고운 미쳤다. 미쳤다. 강간도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산단 말이고.

서내 허참, 여성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던지 해야지.

고운 난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누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순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순결에 집착하는 여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

반짝 남자들이 원하니까. 글구 아닌 경우에는 처녀막 재생수술도 하잖아.

서내 상황이 남 웃기지 않나. 같이 즐겼으면서 여자는 순결(?)하길 원하고.

고운 (내뱉대로 해라)보지? 난 보면서 이나영 대사에 충격 먹었는데, 거

기서 이동진이 이나영에게 "사랑하는 사람있었나" 물어보니까 이나영이 "있었다" 그러대? 그래서 "같이 잤냐"고 물어보니까 이나영이 "잤다" 이러니까, "너도 나처럼 막살았구나" 이러면서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나영이 "난 잘못한게 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사람과 잔 게 무슨 잘못이지. 난 후회안해." 이러는 대사가 있거든. 정말 맞는 거 같지 않아?

아른 맞아. 글구 기본적으로 난 섹스 스타일 정도는 확인해 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결혼은 한 사람이랑 한다는 약속, 이런 거잖아.

반짝 맞아.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랑 해보고, 애랑 맞고 애랑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조건이 맞을 때 결혼하는 게 좋지. 대체 될 뻔고 섹스도 안해보고.

서내 난 꼭 동거를 해보고 맞으면 결혼을 할꺼야. 결혼생활은 일상인거잖아. 연애만 할때보다 동거를 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반짝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는건지, 용기(?)가 있는건지, 무조건 결혼하고서 살면서 맞추면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완전 무대보야냐?

소리 그렇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반짝 (빠죽거리며) 뭐, 좋은 얘기는 안하겠지. (웃음)

모두들 웃음

섹스에 대한 대화가 필요해

서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성에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실제로 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가가 진보척도라는 생각이 든다.

반짝 사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저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 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담담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음모수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취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

서내 나도 옛날엔 그랬지. 안 좋은 선입견이 많았으니까. 들으면서도 '저 언니가 저랬단 말야' 이랬거든.

소리 순진녀 난 아직도(?) 좀 민망한걸. (웃음)

아른 우리나라에서는 섹스가 음성적으로만 말해지잖아. 성교육(?)은 포르노를 통해서 이뤄지고. (웃음) 근데 그것도 남자 경우지, 여자 같은 경우엔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포르노 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 진짜, 여자는 모를수록 좋다고 착각한다니까.

순진녀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서내 사회에서 섹스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 섹스도 생활이잖아. 나조차 부모님의 섹스 결과물이나, 자연스럽게 얘기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구봐.

아른 맞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고운 마자마자.

반짝 앗, 시간이 벌써!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 No, '여자의 동지'는 여자

여성의 3성(성장, 성숙, 성공)을 위한 희망의 불씨 '멘토링'

글 맡겨 bodrawoon@korea.com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취업하기도 힘들뿐더러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 나듯 적다. 일단 남성에게 비해 외모나 학벌로 취업 문턱 앞에서 제재를 받기 일쑤고, 직장 생활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무연유연의 사직 압력을 받기도 한다. 이런 저런 난관을 풀고 살아 남는다 해도 가사의 짐에 눌러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데다 여자는 비즈니스에 약하다는 등등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두 세배로 노력해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여성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현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횡행 할 만큼 여성들간의 네트워크는 '동지'의 개념보다 '경쟁 상대'일 때가 많다.

이런 문제로 여성부는 "여성들만이 느끼는 불안함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사이버 멘토링'을 시작했다. 사이버 멘토링은 멘토라 불리는 선배와 멘티라 불리는 후배가 일대일로 사이버 자매가 되어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간 여성이 후배 여성을 위해 자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원래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레 그리스의 이타이가 왕국의왕이 오딧세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부탁해 왕자의 친구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 그 후로 멘토라는 이름은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와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멘토의 개념을 이용한 멘토링이 뿌리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후배간의 만남이 조언과 건전한 정보교류의 성격보다 '줄 당기기식'의 부정적인 인맥 쌓기로 변형되었고, 특히 남성들의 학벌이나 지연에 따른 편 나누기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멘토링은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라도 쉽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비마다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후자는 남성 사회를 지배하는 '인맥'과 대조되

는 '인맥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후배가 선배를 받쳐주고 선배는 후배에게 물을 준다는 뜻의 상징적인 의미다.

또한 여성에게 직업의식을 심어주고 여성들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등 멘토링에 성과는 무궁 무진하다. 여성학자 박혜란씨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학연과 군대 등으로 얽혀 여성을 끼워주지 않는 남성들의 패거리 문화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왔다"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오랜 편견을 깨는 데도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www.women-net.net)에서 사이버자매로 활동하는 있는 여성은 총 107명으로 30~40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멘토들과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멘티가 있다. 그중 멘토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로는 조선희(소설가), 황윤(영화감독), 김혜정(삼경정보통신 대표)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멘토로 적합한 사람이 꼭 명망가일 필요는 없다.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근에는 연세대 등 대학도 멘토링을 준비중이며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이화인닷컴(www.ewhain.net)을 통해 학교 출신의 전문가를 비롯,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결해 후배들과 상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적다. 그러나 갈망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깝다. 내 삶의 조언자이자 든든한 동지가 될 멘토링을 통해 3성(성장, 성숙, 성공)의 희망에 불씨를 지펴보자.

나의 멘토

"대안 학교 교사로서 희망을 갖게 만든 소중한 인연"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다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줄거리가 등장한다.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주는 인물을 만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낸다는 대목들 말이다. 유익태를 만나 의학에 눈을 뒀던 허준이 그러하고, 설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한계를 극복했던 헐렌 켈러가 그렇다. 그렇다면 방향의 시기이자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시절, 우리는 어떤 멘토를 만나 어떠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4일날 수업을 마치고 난 후 오랜만에 하늘(지구과학교육 4)이를 만났다.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장 대신 아작은 인식이 미미한 대안 학교로 진로를 밝힌 그녀,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주변사람들 이야기와 최근 에피소드를 나누며 짚짚대가를 한지 1시간쯤 지났을까. 남학생들에 비해 절친한 선후배 관계라는 것이 딱히 없는 여학생들의 현실 속에서 하늘이의 선택을 지지했던 선배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소중한 이야기를 쏟아 내듯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 대학생활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있나?

-음.. 있지. 미순 선배랑 영아선배. 가치관을 형성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배들이야. 아마 두 사람을 뵈고 나면 내 대학 생활은 이야기 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니까.

어떤 사람들인데? 우선 미순 선배 이야기 좀 해줘.

-그래, 사실 나 입학했을 때 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 온 것도 아니었고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렵고 그렇더라. 영화동아리 활동도 잠시 했었는데 별 흥미도 못 느끼겠고 대학생할 하는 것이 막막했어. 그때쯤 미순 선배가 눈에 들어 왔었지.

내가 1학년이었을 때 그 선배는 3학년이었는데 놀기도 잘 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선배 모습이 무척 부럽더라고. 여러모로 생활과 가치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같았어. 게다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 신경을 써주었던 선배야. 뭐 그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한 두 시간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대

-선배는 참교육을 항상 이야기했어. 지금 선배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 선배가 어떻게 살 것인지 확신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고민했을 때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 했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일치 할 때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난 그 말 지금도 믿어.

그렇구나. 그럼 영아 선배라는 사람은 너에게 어떤 역할 모델이냐.

-처음에 영아 선배는 그냥 친구 같았어. 같이 오락하러 다니는 친구. ㅋㅋ. 내가 생각하는 영아 선배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뛰어난 것 같아. 내가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제대로 된 정보와 견해로 잡아 주었던 선배지. 내가 대안학교를 생각해볼까 했을 때 영아 선배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같이 서울에 있는 한겨레 문화센터에 강의를 들었었지. 근데 강의 내용이 실생활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야. 더 고민만 생겼지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영아 선배는 생태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글쓰기 대안 학원에 덜컥 취직을 한거야. 선배가 취직한 후 경험했던 내용이나 활동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지금 나에게 참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

너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데.

-사실 대안 학교라는 것이 월급도 많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선배는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간 후 자신이 하는 일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더라. 주말을 지저워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평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해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라는 직업이 행복할 수 있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최근에는 개인적인 상황과 맞물려 고민 많고 어려운 상황이었어. 대안학교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엄마와의 대립, 가족을 부양할 책임 등등 고민이 마구 밀려오면서 무척 힘들었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영아 선배가 그러더라. "차근차근 해결해 가라. 코끼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나"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시간을 벌고는 엄마와 타협을 이끌어 낼 생각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이야.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과방이 1학년들만의 차지가 되고, 옛날 뜻의 의미가 축소되며, 남학생들에 비해 선후배간의 교류가 부족한 여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하늘이가 말한 선배들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 더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 정도일 뿐인 그들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정보나 미흡한 철학이라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정말 소중했다. 우리도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멘토·멘티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공익 소송계의 마이더스, 배금자 변호사를 만나다

-군산 윤락녀 화재사건 첫 국가배상 받아

글 아치 bodrawoon@korea.com

83년 겨울, 한 여학생이 화난 모습으로 우리학교 총장실 문을 열었다.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학병정법대 고시원 이용 허가를 기다리던 중 여학생은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학장에게 따지러 갔다가 합의가 묵살되자 이번에는 각종 법 문헌을 들고 총장을 찾아온 것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여자가 있으면 팬티 차림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남학생들의 자극이 이기적인 요구 때문에 고시원에 여학생 출입을 불허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장은 조목조목 부당함을 설명하는 여학생의 기백에 놀려 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우리학교에서는 남자화장실과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남성들만의 성역은 사라지게 되었다.

학력

1984년 부산대 사학과 졸업(법학과 부전공)
1989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석사학위)
1998-1999년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객원 연구원

경력

1989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1989년 부산지법 및 동부지법 판사 역임
1989년-1990년 동서로펌(현·광진로펌 전신) 변호사 근무
1990년 11월 서울 서초동 '배금자 변호사 사무소' 개업
199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단체인(변) 가입
1999년 4월 서울 서초동 해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업무 재개
2000년 2월 서울 서초동 '해인법률사무소' 개업
현재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회 역임
주한미군법치운동본부 법률전문위원 역임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법률전문위원
김보은 사건, 김보남 사건, 우조고 성폭력사건 담당 변호사

저서

'이와있습니다' (문예당, 1996)
'인간을 위한 법정' (책, 1999)
'미국대법소송 이론의 한국에의 적용(하버드 로스쿨 석사 논문, 1998)의 다수



배·금·자. 바로 그녀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우리나라에서 김보은·신교수·우조고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최근 담배 손해 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냈던 변호사이며, 학병정 출입을 당당하게 따냈던 그 용기 백배한 여학생이다.
'부당한 무(無)에서 의미 있는 유(有)를 창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는다'는 그녀. 이번에도 군산 윤락녀 화재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아 내고 성매매 특별법을 제기하며 상상치 못했던 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 배변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찾았다.
바쁜 일장에도 불구하고 배변변호사는 약속했던 30분에 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최근 말았던 성매매 사건까지 유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참고로 그녀는 편안하게 선풍기라고 부르며 요청했다.

-판사 경력도 있던데 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판사가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6·25 기간에 누명을 쓰고 경찰한테 고문을 당해 실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먹었지. 그래서 난 그 길만 보고 달려 왔어. 그런데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발령 받으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어. 사건을 맡을 때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감이 많이 들었고, 부패가 만연하고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판사를 그만두고 처음부터 깨끗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그 당시 별로 인기 없었던 로펌 변호사 일을 했어. 그런데 사실 로펌 활동이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잖아. 내 마인드는 공익 활동에 쏠려 있었거든. 그래서 1년 만에 로펌을 나오면서 개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조직에 얽매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이 사법고시를 공부했을 때는 여자가 판사나 변호사를 희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모님은 참 개여 있던 분이셨지. 게다가 어렸을 때는 모 스님이 명이 짧다고 해서 남장을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여성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어. 오히려 내 부모님은 '세상에

나가 큰일을 하는 대장부가 돼라'며 항상 격려 해주셨거든. 그리고 보면 '양성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에 비해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은 내 꿈을 꺾으려고만 했었어. '여자가 무슨 판사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림을 받기 일쑤였지. 정말 왜들 그랬는지 몰라. 난 선생님들 말 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울만한 여성들을 찾아서, 주로 혁명적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 했지. 나혜석이 라고 아냐? 조선시대 서양미술화가이자 신여성이었던 그 여자는 가부장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서구 여성들 못지 않게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한국사회의 현실이 그 여자를 수용 못해 시대의 희생양이 되기는 했지만 난 그 여자 이야기를 빠짐 없이 읽으며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했었지.

-선배님을 두고 생각에서는 '스타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적하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죠. 김보은이나 우조고 사건을 맡으셨는데 특별히 맡게된 경위가 있습니까.

그 두 사건 말이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승소하기 힘든 사건이었지. 판례도 없고 제대로 된 법도 없잖아. 우리나라 법들은 정말 죽은 법들이 많거든. 처음에는 모두다 실패 할거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사건이어서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성단체와 연대해서 사회운동 차원으로 크게 이슈화 시켰지. 그 다음으로 이런 사건들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종국에는 관련 법 제정까지 요구했던 거야.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전무했던 시기라 힘들었지만 '소송'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

참, 내가 당부하는 건데 세상을 바꾸는 데는 소송이 정말 큰 역할을 해.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산대에서도 하네 성폭력이나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소송하고 학칙도 만들어야해. 그런 것을 총학생회에서 해야지 안 그렇냐?

-군산 윤락녀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다 설마 국가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했잖아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척 큰 의미가 있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 사각지대이자 가장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윤락가야. 1.5평 폭방에 가두어 두고 인신매매 폭력을 일상적으로 일삼으며 하루에 5~20명까지 손님을 받게 하고는 돈을 모두

다 갈취하잖아. 한 여섯달 월 1000만원씩 바는데 모두다 뺏어간단니까. 그런데 경찰들은 감시는커녕 옹호해주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실태조사 한번 안 나 왔다는 거 아니냐. 어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니.

나 이 사건을 여성단체에서 처음 의뢰 받았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냐. 여기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일할 인력도 없고 국가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포주들을 옹호해주고 말야. 그러니 당연히 국가 책임이 크지. 국가 배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이번 판결이 아마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윤락녀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일 텐데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어.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는 일이 중요하거든. 현행법은 윤락을 하게 될 경우 성 구매자 보다 윤락녀를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성 차별 의식을 보여 주는 단면이지. 그래서 법의 잘못된 점을 파헤쳐서 처벌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윤락녀들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이나 상담소 설치 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고 있어.

-이런 성매매 문제 같은 경우 제도적인 잘못도 크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큰 개선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성매매 문제를 이야기하면 공창제를 주장하는 여자들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은 가부장제에 물들어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못된 여자들의 회생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잖아. 만약 공창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윤락녀들의 인권은 완전히 짓밟히는 거지.

청소년 성매매 문제도 그렇다. 원조조제나 성매매 한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인권침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인권이 먼저 아니냐. 성매매 한 사람들은 다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진과 주소까지 모두 공개한다니까. 이야기 하다보니 참 답답한 것이 많다.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 안돼. 결혼만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 것이 바로 남성에 여성이 종속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리고 절대 착한 며느리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중심이 되어야지 시가대에서 끼어 들면서 간섭할 것이 아니잖아. 난 제사도 안하고 우리 부부는 식사도 각자 해결해. 24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해도 아까운데 말이야.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여자가 성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나간 선배의 입장에서 여대생들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별다른 해법보다 일단 자기 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식 무장이 필요해. 그리고 여성성을 강조하기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마무리해야지. 마지막으로 폭탄주나 절대 문화에 동요되기 보다 잘못된 것이나 싫은 것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 이 정도면 이야기가 되나. 앞으로 부산대에서도 멋있고 성공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할게.



문화라는 몸에 자유의 옷을 입혀라 -보일라 발행인 강선제

글 아치 bodrawoon@korea.com

아~ 갑갑해 도망치고 싶어! 불안한 미래와 작아져만가는 자신감,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리는 말이다. 그래, 나도 걸리고야 말았다. 취직하기 전까지 절대 낮지 않는다는 이른바 4학년 병에

강선제씨 미술과 졸업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랬다. 이유 없이 답답해져 오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애꿎은 토익 책을 구겼다 뒀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현듯 지난달 6월 한 서점에서 우연히 접했던 작은 문화잡지 'Vibe'의 편집장 이야기가 생각났다.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돈도 안 되는 집지 일에 온갖 애를 끼쳐 붙여 부으며 우리학교 자유 게시판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그녀.

어떠한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나처럼 이런 고만을 하나? 기대감 반, 호기심 반으로 덜컥 약속시간을 정한 후 구 정문 셋길 넘어 터를 잡고 있는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빗물이 새 것만 같은 천장, 재봉틀과 포스터 등 온갖 물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구석구석, 깨알계 색칠된 침상... 작업실은 흡사 탐정 만화의 지하 아지트 같았다. 게다가 며칠동안 감지 못해 딱이 된 머리를 금요일 연신 피곤해 미처 깎지 않았던 중얼대지만 잠자기는 싫어하고 비싼 고기를 싹껏 구워놓고도 고양이 밥으로 다 줘버리는 그녀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이했다. 그래서 물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보다는 그 속에 담긴 물의 성질을 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해."

어떻게 보면 그녀의 길지 않은 여정이 고집, 끈기 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물을 담은 듯한 그 무엇 같기는 하다. 할머니의 심한 남녀 차별로 '여자가 무슨'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꿋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얼마 전에는 자유게시판에 미술학과 그림 도용 사건을 올려 화제가 될 정도로 고집이 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와 어울리는 단어는 '끈기'다. 원하는 일, 바라는 것은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끝까지 재자리를 지키는 편. 지금 하고 있는 '보일라'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할 생각이라는 그녀는 한 우물을 파는 자신의 성격 탓에 외톨수라는 소리도 듣지만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후회는 없다.

"보일라는 왜 만들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만들었지. 사실 우리한테 문화라는 것이 없잖아". 간단 명료하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 만들고 있는 '보일라'는 정말 돈이 안 되는 일이다. 천 원에 팔고 있기는 하지만 다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작 본인한테는 한 톨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빚만 늘어날 뿐이다. 그런데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는 그녀.

"자기 글이나 그림, 혹은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작품을 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잖아. 문화라는 것도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고 나누고 싶은 것을 보여주거나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해"라며 자신의 문화 지론을 밝힌다.

현재 보일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과 글이 실린다. 그래서 특별한 주제도 없다. 무슨 뜻인지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만화에서부터 락 밴드나 인형 기술자 등 인물에 대한 인터뷰도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 혹은 가끔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통로로 보일라는 꾸며지고 있다.

"근데 진짜 꿈이 뭐예요?"

"문화잡지 한다고 비평 쪽에 관심 있냐고 묻지만 난 제3적으로 예술 어쩌구저쩌구 하는 게 싫어. 몸에 편해 마음까지 편하게 만드는 한복 있지? 난 그거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 지론이 그러하듯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로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한다.

그러나 평범한 이들의 시간 패턴으로 보기에선 그다지 여유로울 것 없는 28살의 나이. 예전에 한복학원을 다녔다지만 지금은 재봉틀 한번 잡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는 집지나 문화 행사 일이 다 내 꿈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 꿈은 10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녀는 오히려 내게 되물었다. "타인의 모습에 자신을 끼워 넣고자 애를 필요 없어. 난 난대 뭐."

새벽 2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한 번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쓰지 말라며 신산당부를 했고 나 역시 그렇게 글 쓸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집지 발행비를 벌고, 무당한 일에는 거리낌없이 제기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10년을 두고 준비하는 모습들에서 묘한 내용이 풍겼던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무계획적이고, 외톨수이지만 관습과 틀을 하나 돌리 부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내고 있는 그녀에게 느껴지는 '자유'의 내용이.

의로운 이웃을 꿈꾸는 그녀

글 정통 aicekhj@freechal.com



자계에 웹진『의린사회』2호가 나왔다는 광고가 떴다. 열심히 만들었으니 보고 싶을 와서 봐라, 요런 식의 도발적 문구가 적혀있었다. 오옷,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호기심에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5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칼럼을 쓰고 있었다. 이에 들떠서 주변을 수소문하여 『의린사회』가 사회학과 학생들이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편집장을 맡고있는 김지혜씨(01)는 우리 잡지와 방향이 맞지 않을 것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그렇지 않다면서 몇 번의 설득작업 후 여름방학이 끝나기 직전 만나게 되었다. 부산대내의 메이저언론-재정상황이 그나마 안정적인 신문사, 방송국, 교지, 해럴드-외에 흔치않은 마이너 언론, 『의린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의로운 이웃이 되자는 뜻의 '의린사회', 문득 사회학과 사람들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는 사회대 사람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나와 너를 넘어서 주위에 관심을 갖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알게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학생운동은 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거대한 것을 얘기한단 말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대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관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의린사회'라는 이름처럼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의린사회』는 처음에는 학생회 편집부로 있다가 95학번 때부터 독립해서 신문으로 나왔다. 한 달에 한번씩 혹은 여력 안될 때는 쉬면서 그리고 인자부족으로 해체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어져왔다. 지혜씨는 일학년 때 선배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시작했단다. 그렇지만 만들면서 새로이 알아가는 것이 있어 좋았단다. 고등학교 때 사회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분께 교과외적인 부분도 많이 배웠다는 지혜씨. 그런 관심의 연장선으로 의린사회가 많은 것을 준단다. 그렇게 일학년은 보내고 선배언니가 졸업을 맞아 중간학번이 없는 의린사회를 함께 만들던 01친구와 둘이서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망설였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후배들을 받았다. 그러다가 96학번 선배가 도와준다고 들어왔단다.

그런데 의린사회는 왜 웹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을까. 우선은 96학번 선배의 제안도 있었지만, 기존신문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단다. "지면으로 하면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칸 채울려고 학생회 소식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실어야 될 때도 있었고, 사실 알맹이는 없는 그런 신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걸 바야바야 우리 논조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웹진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했죠. 그전까지 발간비용은 학생회 지원금과 본관에서 주는 건전예술통화권 지원금 받아서 만들었죠. 100부 만들어서 과 사람들 돌리고 사회대 안에서만 배부했고, 나중에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주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일 칼럼 형식으로 내가 내 글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전문성 있게 조사하고, 칼럼 쓰기로 했죠. 계획은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체가 온라인 매체로 변한 것이다. 어떤 장단이 있었을까. "지면으로 냈을 때는 편집도 저희가 다했거든요. 편집할 때는 밤샘도 하고 그랬어요. 신문 한번



나오고 나면 내가 잘 썼던 못했던 간에 일단 거기서 뿌듯했지요. 웹진은 수고스러움은 덜 드는데 그런 만큼 그런 뿌듯함은 좀 적어요." 물론 "부차적인 거 다 찢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 생산해 낼 수 있어서 더 좋아진 것은 있어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수용자가 더 넓어졌잖아요. 지금은 초기니까 아직 낮지만, 물론 웹진은 업뎃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면 죽어버리니까 신경을 써야겠죠." 라고 말한다. 편집이 과내 필자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나서서 지금처럼 하고 있단다.

광고를 떠올리며 정말 자신있어 보였다는 말을 하자 멧갯게 웃으면서도 힘있게 말한다. "글쓰는 부분은 저희가 미완일 수도 있고, 덜 성숙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든 그르든 그 만큼 고민을 했다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배우는 단계의 입장인데,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신감 없이 맨날 나 부족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하자는 거죠."

언론인으로서 보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관계가 고민이라는 그녀. "저희가 맨날 이론은 어떻게 실천이 어떻게 이런 얘기 한단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만 써서 내는 것은 이후에 후속적인 고민들이 안 따르면 아무 소용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작은 일이라도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것을 써야되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매체에 대한 별 고민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의린사회를 계속해나갈 것이냐는 물음에 편집장 자리가 물려줘야겠지만 (의린사회)는 계속 하려고 한단다. "사실 글 한편 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번 났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는 후배들 같이 이끌어줄 수 있으면 이끌어주고 그럼 좋겠죠." 라고. 그리고 학내에 다양한 매체가 더 많아져서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단다. 그리고 작은 언론사를 꾸리다보면 어김없이 맞닥뜨리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한다. "지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악해요." (피차 같은 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둘이서 한참을 떠들었다)

지혜씨는 일 학기 때 오태양씨 강연회가 인상깊었다. 그 강연을 들으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삶을 대하는 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소수자이고, 자신의 소신껏 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녀에게 지난 학기 총학생회의 행사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슬쩍 물었더니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좋단다. 그렇지만 학우들을 대할 때 조금더 포용력을 가졌으면 한단다.

고등학교때 「만들레」를 보고 난 뒤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 사회대로 왔단다. 문제의식이 받쳐줘야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단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고 싶냐는 질문에 "고민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 말한다. 할랑 목표를 잡아야된다고 "아님, 저처럼 되요- -!!!"라는 암울한 말을 건넸다. "저 여태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게 아니라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어요." 라고 말하는 지혜씨. 아직은 여유로운 2학년, 의린사회를 꿈꾸는 그녀다운 대답이다.

여자 VS (대) 탐험!!

미친나봐 (가면. 22cm)
P모 대학 개학중

머리가 많이 자라났다...
눈이 양반장

대학생 특별 할인!!!
코스프레이트 25000원 깎아 15000원
영식 20000원 선풍기 25000원
반 모범이 학생..

어머~ 어머~ 어머~
대학생 거예요?

대학생 거예요?

미친나바 (가명, 22세)
P모 대학 재학중

미친가 많이 자랐어...

눈이 양반

자한미친분

대학생 특별 할인!!!
골프세이트 25,000원 깎아 15,000원
연식 20,000원 선택! 25,000원
한 달에 한 달..

어어~
어서 안세요~
뭘 하실
거예요~?

A cartoon illustration of a character with spiky hair and a wide-eyed expression, surrounded by speech bubbles containing Korean text.

- Top left bubble: "아니지? 너무 많이 생각했어..."
- Bottom left bubble: "영화를 두시간이 지나서..."
- Middle left bubble: "영화는 무슨 색깔?"
- Top right bubble: "알려지는 어떻게 가능한데..."
- Middle right bubble: "영화를 무슨 색깔?"
- Bottom right bubble: "...뭐 아무거나..."
- Bottom center bubble: "코딩을 하느라..."

민 망...



영역중...

저미~
 얼른는
 머릿결이
 곱하네~
 한
 얼른는 ...
 많이 사랑했어?
 이제까지
 너무
 잘~알고있네
 가라
 꼭꼭
 대답
 할게~
 당신에겐~
 파라다이스!!
 가라

손님 머리는 medium 이하가 강마이일 만 내세워... 안행히 가세요!

영마 조?

카운터

long & short의 기준이 뭐일래?

이것이 살화다!!

우리 가족사이에서
그녀는
"풍물피세날"로
웃는다!!

어머나!
가운데.
아...

마지막
다들
여러...

너무 많이 작은 시눈거 아냐?..

이쯤되면
'그대들 안까지 못가...'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게 작은 머리가
또 묘하게
멍에 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어느새 포깅 머리 →

머리 좀 작으려구요...

머리 작르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아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다.

E-mail: hmadh00@hotmail.com

가끔씩은 이런 것도 펼칠 때가 있지... Fin

해운대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며

글 양지 rhyim@treechal.com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지만 내가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지 이제 겨우 석 달 정도 되어 가고 있다. 막연히 시작된 성매매 실태조사. '성매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 떨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회의하는 기대감 없는 초라한 시작이었다. 내가 두려움을 떨었던 그곳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심 밖의 곳이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권을 누릴 수 없는 곳이었다. 당장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었다. 그 3개월 동안 '성매매'에 대한 나의 무지함에 충격을 받고, 세상사람들의 무관심에, 그리고 언니들의 고통에 대해 알면서 많이 놀랐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놀라게 되었다.

해운대 지역은 관광특구지구라는 명목아래 수없이 많은 유흥업소를 비롯한 609지역(매매촌지역) 등 활성화되어 있었다. 여성문화 인권센터와 부산대 총여학생회 친구 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한 것은 성매매지역의 지도 그리기!! 나를 비롯하여 5명의 친구들이 구역을 나눠 일일이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렸다. 그리기를 한달, 드디어 완성된 지도를 갖고서 함께 609지역 들어가기로 시도했다. 매주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바로 잡아나감, 어떻게 하면 언니들이 우리들을 편하게 여길 수 있을지를 고민 또 고민했다. 처음 609지역에 들어갈 때는 혹시 누가 날 잡아가지는 않을지, '딩' 치들이 와서 시비는 걸지 않을지, 언니들이 우릴 싫어하지는 않을지 혹은 처음에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등등 온갖 잠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그리기를 두 달, 이제 저녁 늦게 609지역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맘을 편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언니들이 매주 정기 검진을 받는 수요일에 보건소에 가서 콘돔을 나눠주고, 금요일은 그곳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특히, 나에게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 바로 라기(별칭)씨다. 그녀는 2년 전에 가출한 뒤 중개업자에 끌려갔던,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친구였다. 선불금에 업주들이 매기는 벌금(예를들면, 지각에 몇 만원, 결석에 몇십 만원씩)으로 돈을 갚는거늘 늘어나는 빚만 늘어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다시 팔렸단다. 포주에게 말을 안 듣는다며 구타당하고, 배꼽다방이라는 곳에서 루프시술을 강요당하여 수술을 했고, 수술뒤에는 자궁에 염증이 생겨 계속 고생하였다. 그녀는, 그곳의 처참한 삶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티켓다방의 99%는 미성년자로 구성되어있다고 라기씨가 그랬다. 그것도 13살 14살이 더 많다고 했다. 이런 어린애들도 윤락행위를 한다고 했다는데 정말 분통이 터졌다.

그녀가 그곳을 나오게 된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순천의 티켓다방의 업주가 빚을 갚아내라고 어머니께 선불금 채권을 들먹이며 부산으로 데려온 덕분(?)이었다. 어머니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 다방은 형사소송으로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었다. 그리고 이때 라기씨와 어머니께서 여성문화인권센터를 소개받았다. 현대 이 나라의 법이 웃기게 보였는지 얼마 후 업주가 라기씨를 상대로 채권을 들먹이며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첫 재판이 있는 날, 사무국장님과 내가 라기씨, 라기씨 어머니와 동행하게 되었다. 그제 라기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가는 동안 짝막한 대화는 있었지만 그 상황자체가 너무 아이러니 한 탓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적막했다. 재판은 무능력자를 고소할 수 없다며 법정대리인에게 고소하라고 붙어있었다. 재판장은 누가 고소하라고 했냐, 며 약간의 조소를 띄웠다. 한달 뒤 다시 재판이 열렸고, 그날 그 다방의 업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재판날은 라기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국장님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최악의 날이었다. 설새없이 비가 내린 날이었는데 재판과 동시에 배꼽다방 및 중



도와드립니다.

단란주점, 룸싸롱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모텔 등 유흥관련업소에서 일하시는 여성여러분, 폭력이나 감금, 선불금 등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부담갖지 말고 전화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T. 702-1003 야간 704-8466

간접자를 화순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지을 수 없는 아픔과 삶의 고통을 안겨준 것을 보상하기는커녕 돈을 내놓으라고 한 업주들에게 분노하기 때문이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라기씨에게 루프시술을 종다고 하면서 강요했던 것 그리고 사람을 팔고 사고 감시하며 살게했으면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배꼽다방을 비롯하여 중간업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화순으로 수시로 조사를 받을 수 없어서 경찰관에 부탁해서 그날 고소장 접수와 수사를 부탁하였다. 처음 형사계에 갔는데 고소장내용을 보며 "어 그럼 나 알겠네?"하며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럼 혹시 순향이 알아?", "어 제가 순향인 데어...", "그 향단인 어디간 줄 아니?", "너 미성년자였어?" 이런 말들이 오갔다. 충격이었다. 미성년자였나? 경찰은 단속하면서 그럼 뭘 했다는 것인가? 말로만 포주와 유착관계 들었었는데, 막상 보고나니 수사진행이 정말 걱정되었다.

점심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일천 데 달친 격으로 라기씨 조사를 나와돌아서 보게 되었다.

어머넌 재판을 받으러 갔어야 했고, 국장님이 운전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국장님은 수사내용을 모두 필기하라며, 뭘 묻고 답했는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

어머니께서도 잘 부탁한다면서 하셨는데, 사실 난 라기씨보다 내가 더 걱정되었다. 비밀인데 나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능력자이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안다고 할 수도 없었다. 거기다가 내 꿈은 경찰관이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상황이다, 실제 상황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된다. 속으로 여러 생각이 뒤죽박죽이 뒹뒹했다. 다행히 수사는 처음엔 잘 진행되었다. 유흥집대부로서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라든지, 화대는 어떻게 했는지, 루프시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고 있었나 등을 물었는데 역시 나보다 라기씨가 침착하게 잘 대답해주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내용이 전개되었다. 거의 끝났다고 싶을 때쯤에 접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육하원칙으로 말하란다. 1년 전 이야기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경찰관도 알고 있었다. 물론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며 다그치고 있었다. 일이 받기 시작했고, 결국 터졌다. 화대를 얼마 받았는지 왜 안 적어왔냐며, 자기가 일을 하고 얼마 받았는지 모르면 어떻하냐며, 또 장부화인을 왜 못했냐면서 라기씨를 다그쳤다. '지금 니가 하는 말로는 도대체 예네(포주)들을 구속할 수 없고, 구속하더라도 형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화를 계속 냈었다. 나도 모르게 왜 라기씨한테 화내나 당신 같으면 말 안 듣는다고 재말이 던지며 구타하는 분위기에 서 장부 보여주면 안되냐요, 라는 말이 나오냐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 이렇게 만든 사회를 탓하고 그 책임을 인간을 욕해야지 애한테 왜 화를 내냐며 이러니깐, 그는 이래서 여성 단체가 안 된단다 말했다. 정말 억울했다. 라기씨가 옆에서 우는데, 같이 울면서 '이 씹끼야! 니 말이 그래 당해봐라'면서 욕하고 싶었다. 그런 말이 나오냐며...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수사를 받고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으라고 수사장을 보여주던데 그곳에 들어서 있는 말, 없는 말 적으면서 다시 읽어보니 똑같은 말만 반복했었다. 그 세끼들 처벌 좀 해달라고...

이날의 트러블 경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루프 시술한 산부인과에 들렀다. 화순에 있는 평화 산부인과였다. 변호사가 진료기록부 복사해 오라고 했고, 만일 안 해주면 이건 법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꼭 해오라고 했다. 이미 고소가 들어갔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됐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진료기록부내용을 배려 수사가 끝난 후 나와 라기씨가 갔었다. 라기씨가 미성년자라서 당시 수술을 다른 명의로 해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났었다. 하지만 그때 간혹사가 누군지 알고 보호자 이름은 기억난다고 해서 충분히 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진료기록부가 많아 일일이 찾아볼 수 없다고 당시 수술 받은 사람 이름이 먼

지금 이스티커를 보고 계십니까?

여 종업원 구함
숙식제공
월수 300보장
T. 000-0000

서빙만 하시겠다구요?

그것에서 당신은 얻치 않는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비과 폭력은 당신이 얻을 때 그것을 버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상담전화 T. 702-1003

지 알아야 된다고 했다.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그러는 동안 국장남이랑 어머니께서 오셨다. 고상고심 중 라기씨가 그때 이름을 생각해냈다. 잘됐다며 이제 빨리 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의사라는 인간이 나와 무슨 일이라며 난리가 피웠다.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 수술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는 어머니께 '나도 아는 판사 있다'며 '본인이 아니니깐 의료보험 안해서 남았던 병원비까지 다시 다 내리고 했다. 참 우리 나라 돈 가지고, 함있으면 다 이렇다. 아물든 진료기록카드든 보여주었는데 입원일 9월 20일 연필로 최윤정(라기씨, 가명)이라고 쓰여있었다. 그리고는 처방된 기록을 보여주며 이래저래 설명해주었지만, 결론은 못 매준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의사가 몇 명인지, 온 의사의 의사는 다 모여서, 돈 내주면 매준다고 우겼다. 결국 다들 실패만 가득 안은 채 다시 부산으로 오게되었다. 기록부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면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셨고, 나는 세상이 왜 이렇까하며 그렇게 계속 회의감에 빠져있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다 같이 담배를 한달 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서럽던지.

이 사회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필요악이라고? 그럼 이들이 당하는 고통도 필요악이라고 한번 해보시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공창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관리 못하는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신매매 식의 여성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성들의 강금·착취·억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매매는 강간을 줄인다고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유희와 사회 강간을 은비레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된다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산업에 종사함으로써 다른 산업에 종사할 수 없게되어 빛의 비능률은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실태조사 기간 라기씨 말고도 나비(별칭)씨의 도움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과 실태조사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언니들과의 대화를 쉽게 해결해주었다. 기본적인 인권 유린과 폭력, 강간과 다들 바 없으며 여성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성을 사는 남자들, 선불금과 말도 안되는 별금으로 온몸을 쇠고랑으로 채우는 구조, 도망가면 바로 섬이나 산간지방으로 팔리게 되며 경찰에게 신고해도 선불금으로 사기죄로 구속시키는 이 나라 경찰들!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든 원치않든 왜 우리는 그 기본적인 문제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눈을 조금만 돌려보자. 이곳 부산만 해도 해운대를 비롯하여 완월동, 부전동, 온천장 그리고 시내 곳곳에 숨겨진(?) 채 드러나 있다. 유유히 성업하고 있는 이들 성매매 공간. 우리들은 곳곳에서 이들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인식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라기씨와 나비씨와 같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모두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성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그녀들을 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글을 접는다.



월장

부산대여성주의웹진 월장의 이번호 기획 '성매매, 쾌락과 인권의 함수 관계'가 업뎃되었습니다..

여대생의 눈으로 본 성매매, 공창제 옹호의 허와 실, 가출청소년을 범죄로 내모는 곳, 성매매방지 특별법?, 새움터 활동을 다녀와서, 대담/화나고 짱나는 말세의 성매매 천국, 고마 환골탈태 해뿌라! 등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www.wallzzang.net

당신들의 여성성

글 손김현정 예술경영 대학원 royalbee@hanmail.net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헬스토키 잡지에 글을 부탁 받았다. 2002년 상반기에 있었던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의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에 대한 글을 써달란다. 아마도 칭찬이 무성했던 그 전시에 대한 달콤한 소개를 부탁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올해 초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시도한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¹⁾은 새롭고도 신선한 시도였으며, 여성성을 발견하고 여성주의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들의 기대를 받기에 충분한 기획이었음은 분명하다. 여성성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하며, 말이나 글이 아닌 미술작품으로 박물관에 전시하고자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러 컴퓨터 앞에 앉은 내 머릿속엔 그 모든 의미들은 사라지고, 근현대의 여성성을 재현하겠다는 그 미술 전시장에서 기겁을 하며 본 친일파 김활란²⁾의 초상화와 얼마 전 청문회를 마치고 총리의 꿈을 접어야 했던 교육자 이화여자 대학교 장상 총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활란의 초상화 / 조덕현 작 1999 캔버스에 콘테와 연필 나뭇구름

1) 전시 개요 |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서양미술이 도입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20세기 한국미술에 대한 또 다른 점검을 내려 볼 때가 되었다. 20세기 한국 미술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작가의 작품은 많이 없다. 남성주체-여성대상이라는 위계구조가 우리 미술사를 틀 지워 온 것인데, 그러한 성별 정치학과 모더니티의 암묵적인 공무관계를 노출시키고 나아가 이를 교정하려는 것이 본 전시가 제안하는 또 다른 미술사의 과제이다. 그것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작가와 관람자라는 여성주체의 시각과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 창조자 앞에 수동적인 모델로 위치하는 소극성과 여성을 그린 작품 앞에서 스스로 남성 주체의 시선을 가장하는 부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남성의 주류 시선으로 미술사를 기술하는 불균형을 인식함으로써 역제된 절반의 미술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중략)

권영진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직원연구원 (전시 개요 중에서)

2) 해방전의 친일 행각은 뒤에서 짧게 소개하기로 하고 해방 후 그녀의 활동상으로 소개를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김활란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중앙부인단 조직에 앞장섰으며 모운숙, 임영신과 함께 탁월한 영어 실력, 미국인과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총동원하여 국제무대에서 이승만을 적극 도왔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서 김활란은 대한부인회 대표로 서대문구에 임후보했다가 차점으로 낙선했다. 이대 총장 시절 1950년에는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가 1년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 나자 당시 피난처 부산에 있던 그녀의 서재로 불러 미려와있던 신성모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안두희에게 '격려금'을 주는 광경을 보기도 한다(93년 국회제출 안두희 육성교백 녹취록).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김활란은 박정희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되어 군사 쿠데타의 정당 함을 주장하는 로비를 했다. 그후 정치, 외교 활동을 하다가 62세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서 물러나 재단이사장과 명예총장이 되었고, 1970년 2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참고자료)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 1993, 돌베개, 275-283.

박은봉, [한국사뎐이야기], 1997, 실천문화사, 276-292.

<http://my.neslan.com/~go2sky/protest/이만동.html>

진정한 여성성은 무엇?

여성이 대상이 되었던 시대와 미술, 그 안의 식민주의를 탈피하며 가부장적 근대성을 탈피하고자 마련했던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여친일파와 여성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80년대 민중미술 작품'과 '여성주의 미니멀리즘 작품' 그리고 '여성적 소재를 사용한 작품' 등과 더불어 전시할 수 있던 말인가? 여친 그런 중차대한 실수를 그리도 가볍게 할 수 있던 말인가?

관점이 올바르게 못하면 진정한 그 무엇의 대안을 만들 수 없고, 제대로 역사를 분석할 수도 없거늘,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은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그럴싸한 페미니즘과 미술전시를 흉내내기 밖에 하지 못했다.

해방 50년이 지나도록 여친껏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해 많은 사회문제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변변함과 여성 국무 총리를 만들기 위해 친일 군사주의 제국주의 옹호자의 잘못은 어랑곳없는, 이 사회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뭇실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단 한가지의 잘못이라도 치열하게 고집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싶다.

더불어 서로가 다른점을 배울 수 밖에 없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의 전시였다는 이유로 전시의 전체를 뒤집는 잘못을 슬그머니 눈감는 우리 사회와 학계는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친일의 과오를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은 채 이른바 비판적 지지를 외치는 우리 여성주의자들들과 달랐다.

부분으로 갈라보지 못하고 전체 포장에 그럴싸하면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사기성이 농후한 우리 사회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자들 또한 이러한 사회의 병폐를 고집하면서 진일보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혹독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달는 어리석음을 여성주의자들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여성성을 사회 각 영역에 제시함으로써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역사를 진일보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가부장적 사회가 아닌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다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의 '여성성의 재현'만큼 좋은 전시도 없었는데 그냥 좋다고 할 것이지, 단 한 장의 김활란 초상화 때문에 트집잡는 것은 너무 속 좁은 행위가 아닌가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치 장상 총장 서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의 잘못이 있지만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 모든 여성들이 비판적 지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저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 전시 '여성성의 재현'과 김활란 그리고 장상 총장, 이들은 완벽한 프랙탈구조¹⁾를 이루는 예리한 공동체인 것 같다. 사공간을 초월해서 말이다. 프랙탈 구조,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은 자기 유사성의 구조를 가진 공동체. 사회구조가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닮을 때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가 없다. 내 모습과 니 모습이 너무 닮아서 다른 그림을 찾기 어려운 지경 말이다. 이름에서 도대체 그 세 개가 뭐가 닮았다는 것이냐, 라는 의문표를 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뭐가 닮았다고? 간단히 말해 이들이 닮은 점은 여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그 닮은 점을 찾아보자.

먼저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의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을 상기해보자. 이 전시에서는 분명 그 동안 파란만장한 근현대 역사의 바퀴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우리네 여성들의 모습과 그 속의 여성성이란 것을 한번 재현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여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자 했다. 그래 좋았다. 수 십여 명의 여성 남성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는 좋았다. 단 한가지, 근대 여성성의 대표 상을 '김활란'이라고 보는 것만 빼면 말이다(우리 근대 엘리트 여성의 대표로 '김활란'의 사진을 다시 초상화로 그린 작품을 전시했다).

김활란, 과연 그녀를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녀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였을 거다. 그러나 어린 여인들을 위안부로 보내는 데 앞장서고 소위 대동아 전쟁이라는 것에 여자들이 기꺼이 뒷바라지하기를 바라는 그녀에게서 제국주의 마인드와 침략과 폭력을 옹호하는 가부장적 군사주의 마인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도대체 우리가 그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여성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장상, 그녀는 그런 김활란의 활동상(?)을 높이 가리기 위해서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 시절 '김활란 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재직 당시 이화여자 대학교 2층 학교 역사실에는 김활란을 국모처럼 떠받들었다. 그런 교육자 장상에 기대할 수 있는 '여성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근대성과 식민주의를 깨고 새로운 여성성을 발견하고, 그동안 남성의 시선에서 대상으로 자리 매김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을 올바른 위치로 돌려보내고자 마련했던 지창한 취지가 무색하게 식민주의 시대 자랑스런 황국여성이었던 김활란을 세운 '전시회', 그리고 제국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군사주의 옹호주의자 김활란, 마지막으로 이런 김활란의 치적(?)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해 상을 만들어 이대 박물관 2층에 그 행적을 새겨 보존하는 공을 보인 좌절된 꿈의 주인공 '장상'. 정말 달지 않았는가? 부분에서 전체까지. 아니, 누가 부분이며 전체인가?

1) 프랙탈 구조: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은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과 소수(小數)차원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

도서관에서 생겼던 일 도리이

시험기간이 되면 으레 자리잡기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만, 저처럼 대학 4년을 자리잡 리 막 2번 겪어본 사람의 자리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캠퍼스 새벽에 일어나 지하 철로 내달리다가 새벽부터 큰 개암 마주쳐 멀미도 하고, 순환버스에 대충대충 매달리다 앞문 에 끼기도 하고, 다행히 아침을 부지런히 시작하는 친구 덕에 저는 무사히 자리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즉, 자리잡기 하기 전에 도착한 친구가 자리를 물색하여 자리잡기 시간이 되길 기 다합니다. 그리고 자리잡기가 끝나는 종이 울림과 동시에 레이더 눈을 가진 친구의 레이더망 에 도착된 장소는 곧 도자위에 의해 책이 차지된 깨끗한 자리를 포착하고, 곧 친구의 가방과 책이 집기하게 되는 것이죠. = =

하루는 너무도 달콤한 꿈에 느지막히 일어난 아침. 오늘도 친구역을 보겠구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녹장을 부리며 책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도서관을 상상하며 유유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곧 단정한 제 자리가 보이겠지요? = = 늘 가던 도서관 x 열람 실에 들어서면 보여야 할 깨끗한 제 자리를 상상하면서 입장하던 순간. 엇 ~ 그곳엔 산책길 은 예비역아저씨 한분이 큰 책받침을 세워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젠 내 자리인데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우람한 예비역아저씨. 이를 어쩌나 잠시 고만하다가 헛기침을 몇번 하고 어깨를 툭툭 친 뒤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요! 여기 제 자리에 좀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두꺼운 책으로 책을 세운 그 분께 마치 제 자리인양 당당하게 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나의 아군이 되어줄 친구 몇 명이 있었고, 이 정도면 됐지요? 속으로 책장을 부르면서..

아니, 근데 그분은 저보고 "언제 오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당황하였지 만, 준비된 멘트 "새벽에 왔는데요" 약간은 양심에 찔린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분은 "왜 가방이 없으신가요? 누가 자리잡아 놓은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좌송합니다. 이렇게 나와 야 하는 건데 당황한 저는 "아, 새벽에 자리 잡아두고 학원갔다 왔어요" 하며 입가용변으로 대 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보기엔 자리 잡아두고 가신거 같은데요. 저도 아침 7 시쯤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 다." 하시면서 당당하고 논리정연하게 저를 꾸짖는 눈초리로 쳐 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죄, 좌송하지만, 저는 소지품이 랍 학원책이 가방에 있어서 새벽이 갔다 온 겁니다. 도덕!!" 권시리 도덕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 다. 그러곤, "공부하시는 데 방해드려서 좌송하지만, 자, 자라 좀. 치워주시겠어요?" 하면서 그레 도 체면이 있지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그분.. 약간 불쌍한 듯.. 바운는 듯한.. 웃음. 그 아픈 웃음을 저으시더니 "하하, 전 비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하시며 묵묵히 공부에 전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그 곳에 물러나긴 제 고집이 웅세를 못하더군요. 주위를 둘러 괜히 일에 앉았다 일터 앉았다 그런 불편 한 기색을 내뿜다가 제 품에 저저 저는 또 친구의 레이더 눈에 포착된 자리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부끄럽고 불편하고 친구 앞에 창피당한 것도 화가 나고, 그 분과 같은 실에 있는 것이 약간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때무기가 다 있잖나? 완존 사마귀네. 췌 속으로 어쩌나 분이 나던지, 그레도 실은 제 잘못이 크기에 속으로 누우치면서 그레 내일은 기 필코 내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겠노라고 결심 또 결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양의 다음날, 그 예비역아저씨도 만나면 이번엔 말겠지요? = = 하면서 저는 이른새벽 강도 설치며 포크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곤 수많은 반자리 속에 여왕처럼 등장하여 한 곳을 선택하여 차지하고는 호호 웃고 하고 있었죠. .. 그리고 드디어 자리 정리하는 방송멘트가 울리 나를 즈음 저 한껏 여유를 부리며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소곳하고 착실한 모습으로 선생 님께 손을검사 맞은 착한 아이처럼.. 한참 건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주위 차례가 된 듯 싶어 저는 제 자리에 당당히 앉아있다가 뒤돌아보면서 마주친 그 사람은 바로, 이 제 만난 그 산책같은 예비역아저씨!! 그분이 글쎄 도자. 위 었던 것이었습니다. T. T 책정께 경. 양심에 찔린 저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이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일론 그 아 저씨가 떠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대학 4년 간의 두번째 도서관 자리 감사 그렇게 겪어다렸습니당. = =

코코아를 뽑아주고 사라진 아저씨, 정체가 무엇이었나 박쥐 batmadam@hanmail.net

내가 도서관 자리를 잡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이에 모두 여자가 자리하고 있을 것 물론 이런 완벽한 자리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기준을 누그러뜨려 비스듬 한 대각선까지는 허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무슨 남자기피중 내지 혐오 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시겠다. 또는, 남자들의 시선이 거주장소라는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줄로 착각하시겠다. 오해도 착각도 마시라. 내가 도서관 자리 잡기에 이도록 공을 들 이는 건, 다만 집중을 위해서야.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자리를 잡은 어느 날, 큼지막한 서류가방을 든 아저씨, 내 앞자리에 탈력 주저앉았다. '이 아저씨, 왜 이러시나. 하고많은 자리 다 놔두고...' 신경이 팽팽해 진다. 주심주심 책을 펼치는 아저씨. 무슨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모양이다. 책 정리가 끝 나자 워밍업이라도 하려는지 자리를 뜬다. 한참만에 돌아온 아저씨, "코코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불쑥 종이컵을 건넨다.

'코코아 안 좋아하는데...' 그건 그렇고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 잘 팔리게 가겠어야겠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대사를 꺼먹은 때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고맙습니다" 는 말과 함께 받고 말았다. 그때 문득 스쳐지나가는 생각.

"남자들이 주는 음료수, 참부로 받아 마시면 안돼. 음료수에 수면제 타서 계운 뒤에 강간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특히 야간 택시기사들이 많이 쓰는 수면제"라고 하나나, 절대 밤에 는 택시 타지 말고..."

밤을 산공하는 친구는 틈만 나면 안전교육을 한다. '법학도 눈에는 이 세상이 온통 범죄 소굴로 보이나 보다. 아, 지겨워...' 하며 흘려들었던 잔소리가 오늘날과 생생하게 떠오른 다. 강한 의혹이 밀려온다. 그리고 보니 코코아 색이 조금 휘황한 것 같기도 하다. 안 마셔 야겠다. 코코아를 밀쳐두고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저씨, "왜 안 마시요? 식기 전 에 어서 마시요" 하고 재근을 한다. 의혹은 점점 증폭된다. 그러면서도 권유에 밀려 한 모 글 마셔버리고 마는 나, 다시 스쳐지나가는 불길한 생각.

'도서관에서 얼드려 자는 여자를 희롱하는 놈들이 있더라...' 내가 바로 그런 희생양? 그래서 안되지'

종이컵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왔다. 정체 모를 검은 액체를 세면대에 모조리 쏟아 부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가? 아니면 코코아에 섞인 정체 모를 약품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바수가 사렌트 로 쳐 발린 듯한 목지근한 두통.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만 주저앉고 싶었다. 머미할 때처럼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땅을 뽀질뽀질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 썼다. '한 모금만 마셨을 뿐인데, 중량이 이렇게 심각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지 모른다' 며 스스로를 달래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망상이라 여기기엔 두통은 너무 강력했다. 한참을 헤맸거라다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코코아를 건넨준 아저씨가 보이 지 않았다. 책도 서류가방도 없었다. 의혹은 더 선명해졌지만 따져 물을 수도 없게 되었 다. 나에게 코코아를 뽑아주고 사라진 아저씨, 정체가 무엇이었나.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저씨가 코코아를 건넨 의도가 순수한 격려 차원의 것이었는지 저열한 흑심 때문이었 는지. 내가 마신 코코아가 과연 자판기에서 찍혀온 것이었는지, 2차 제조된 것이었는지. 전자가 옳다면 순수한 의도를 영동하게 곡해한 것이고, 후자가 옳다면 재수 없는 사건에 발려들 뻔한 것이리라. 어쨌든 그날 이후 나는 새가슴을 더욱 움크리고, 친절하게 구는 수 컷들을 경계하게 되었으니, 슬프도다. 믿을 놈 없는 세상!

p.s. 아러분, 위의 헤프닝은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니 움츠리지 마세요. 하여도 학교 도서관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시라니깐요

연구도서관의 풍경 고래

방학 동안에 잠시 연구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1층 데스크에서있는데, 내가 맡은 일은 '상호대차' 라고 해서 타대학 간의 논문이나 대출이 되지 않은 서적들을 복사해서 보내주는 업무였다. 시급 2,500원이면 꽤 괜찮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오래 그 일 을 하게 되었다. 상호대차 업무를 보려면 중도, 구도, 상도 등을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 그레 서 학교 내의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 본 것 같다. 참 우스웠던 게 책을 배치해 놓 은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리즈의 책인데 어떤 것은 연도에 있고, 어떤 것은 구도에 있고, 이 곳에 있을 책이 아닌 것같은데 공대 도서관에 있다가나, 하여튼 이런 식이 많다. 일본 그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오랫동안 연구도서관 에 있으면서 내가 눈에 익힌 몇 가지 풍경들에 관해 말하려고 한다.

눈에 익은 풍경은 1층의 계단 아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쉬는 곳이다. 그곳에는 청소용 구합과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 있다. 그 조그만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 지만, 그곳에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 다. 안도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두 분이다. 1층부터 4층까지 다 하신다. 청소하는 아주 머니들은 언제나 분주하게 돌아다니신다. 연구도서관의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 속 1층에서부터 4층까지 화장실을 훑고 닦고, 그나마 연구도서관은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중도보다는 깨끗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쉴 때면 다리를 펴고 앉아서 이야 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이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진다.

연구 도서관은 제 1도서관이라고 하는 만큼 다양한 직함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무실을 가지 고 업무를 보고 있다. 나는 중년의 남자 도서관 사서나 과장 정도의 사람들이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천하가 자라서 그런 것일까? 실이 그럴 리가, 어떤 남자 사서는 아주머니한테 웃으면서 농을 거는데, 물론 내가 스토키 가 아닌 이상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를 알 계간은 없다.

두 번째 풍경은 사서 선생님들 간에 커피 마시기이다. 사서 선생님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쓰는 편이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위 계적인 질서나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안쪽 사무실은 과장의 방인데, 과 장 역시도 남자 사서와 여자 사서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커피를 마시거나 녹차를 마실 때 일어난다.

과장의 방에 세면대가 있는데 가가는 주로 이를 담거나 커피, 녹차 등을 타먹고 설거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지금껏 남자 사서 선생이나 과장이 커피를 타거나 녹차를 타서 여자 사서 선생님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본 역사가 없다. 여자 사서 선생들이 커피를 마실 때에는 거의가 남자 사서, 과장 것까지 함께 타는 편인데 말이다. 설거지는 또 누가 하 는데? 백이백 백, 여자 사서 선생들의 몫이다. 남자들은 자기가 마신 찻잔을 세면대에 갖다 놓는 경우도 드물고, 설거지를 하는 법은 더더욱 없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긴 풍경이었다.

모두가 도서관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제마다 다를 것이 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서관 안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선 이 있는 것 같다. 누구는 여기까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누구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하 고 게다가 여자 사서 선생님들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거의 자선스런 풍경으로, 하 고 있는 게 아닌가. 답답한 현실이다. 조금 더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알하는, 그 런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는 없을까?

도서관을 떠올리며 배평이

나는 도서관을 좋아해서 종종 간다. 특하나 중도를 좋아한다. 가끔 책이나 잡지를 보거나 빌 리기 위해서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주로는 알람실에서 공부를 한다. 요즘은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이 많아서 도서관에 자주는 못가지만, 마음이 심란할 때나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때는 뭐라도 한 권 들고서 도서관을 찾는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시험기간의 자리경쟁, 도자위의 활약이라던가(자금도 더 많은 개선 이 필요한 상태지만, 도자위가 없었을 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불박이들의 활력소인 반박 이, 그리고 중도 가득히 붙어 내 관심을 자극하는 대자보, 그리고 자리를 찾아 오늘도 책메이는 때무기를, 기본 나쁜 사마귀, 그리고 서고에 가득한 책들. 아, 또 있다. 공부에 지쳤을 때 위로가 되어주던 중도 커피라던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신문들 등등.

그렇게 몇 년을 도서관을 들락거렸지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경비원 아저씨가 계시다는 사 실을 몰 초 실태조사 전까지 전혀 몰랐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장실 청소 등으로 스친 것이라던가, 뒤늦은 배라치기 때 아주머니들께서 커다란 쓰레기통과 빗자루를 가져오시며 '학 생-문 좀 닫자'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아주 깔끔히 생각을 해야만 떠오르는 기억 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과 경비 아저씨가 계시다는 사실을 '의 식'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법.못.알) 을 본 것이나, 올 초 경비원 아저씨께 중으로 학 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참여시 하면서 생각이 많이 깨졌다.

평균 47만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 학교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이 넘는 노동에 대한 대 가로 한달에 겨우, 47만원을 받으신다고 한다. 그나마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었다. 그리고 연휴때도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석과 설날 당일만 쉴 수 있고, 그밖 의 가정의 대소사는 전혀 쟁길 수 없으셨다. 당연하게도 다른 휴가는 일절 없고, 그렇다고 월차 수당, 연차수당을 주는거하면 그런 어렵없는 소리다.

내가 특하나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일년에 두 번 개강 전에 하는 대청소를 하고 나면, 몇 일을 피오 증을 누신다고 한다. 그 넓은 도서관을 몇 달분서 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하니 좀 끔찍하기까지 했다. 저 덕없이 낮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막대한 장물에게 배안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서 매일 해야하는 일이라 니! 학교측에서는 이런 아주머니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없이, 매년 용역업체에게 최저임금도 때 주고서는 아주머니들이야 어떻게 되건말건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은 매 년 제자리를 지키는 덕없이 낮은 월급으로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신다. 나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화 가나는 일이었는데, 아주머니들은 어쩔 수 없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체념을 하신 듯했고, 그나마 팔리지 않고 학교에서 알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는 한 권으로 무척 슬펐다.

이제는 도서관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아주머니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주위에 있는 쓰레기도 몇 개씩 주워서 나온다. 물론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며 의식하지 못한 채 아무곳 에나 버리는 쓰레기들에 비하면 세발에 파먹어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고 싶어서 그런 다. 듣기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만큼의 임금도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겠다. 물론 실태조사를 할 때조차 손사래를 치시며, 말을 아끼면서 아주머니들께서 학교측에 밀보이 는 일을 쉽게 하려고 하시진 않겠지만 말이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관심있게 보면서 조금씩 돕 는다면, 문제들이 조금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을 깨끗이 이용하는 것도, 아주머니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모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1탄> 내 일상의 반란 - '일상의 반란 +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글로리아 스타이넘)' 을 읽고

<2탄> 클리토리스 섹스 - '아주 작은 차이(알리스 슈바르츠)' 를 읽고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으뜸이었던 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레 나의 주말다위파단차는 단연 서점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사상의학적으로 본인은 팔바닥이 쉽게 후끈거리고 몸의 열기가 많은 터라 여름이 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두 컵 많은 커피를 팔아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쉽게 말해 '한일자동팔 펌프' 라고나 할까? 그날도 본인, 흘러내리는 욕수를 감내하지 못하고 서점으로 피난 갔다. 그곳엔 어김없이 책이라는 선풍기들이 있었다. 이리저리 훑고, 신행 선풍기들을 둘러보다 본인의 팔뚝을 일가에 일러버린 조강령 애어린다녀가 있었으니 바로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일상의 반란' 이었다.

1탄 내 일상의 반란부터

자, 여기서 본인 속에 내재된 '기부장성 걷어내기 시리즈' 가 시작된다. 1탄은 고정화 된 성역할 사회화를 본인 집에서 거부하고 고쳐나가는 것. 즉, 남녀의 고정화된 가사노동을 편견없이 나눠보는 것으로 본인 일상의 반란은 시작된다.

오마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는 본인, 그 쪽수에서도 여성상위에 살고 있는 환경이지만 유독 가사노동에 있어서 만큼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곤 했다. 그래서 본인과 동생, 강의 나가신다고 바쁘신 오마니 생선선들로 '우리집 딸래미 아들래미 집안일 분담표' 를 드렸다. 일단 시기별로 역할 구분없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뭐든 가사일을 하면서 위임업 기간을 갖기로 했다. 힘쓰는 건 남자, 안그런 건 여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적용하고 싶지가 않았다. 우선 본인이 문제였다. 가끔하는 집안일이라고요 설거지가 고작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일이나, 반상회 날짜, 장보기는 어디가 쉼 등 기초정보와 부업 어디에 뭐가 있고, 양수증은 어디에 보관하는 등의 집안일 메커니즘 내막을 본인이 알 길이 있을 소냐? 그래서 우선 함함이 집안 구석구석을 견학하고 예전보다 주의깊게 인지하고 본인이 먹은 설거지거리는 바로바로 해치웠다.

이런 공통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인턴기간이 있는 뒤 그다음에는 토요일 새벽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주말에는 대청소에 팔히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 빨래가 쌓이면 본 사람이 먼저 돌릴 것. 화분 물주는 집에 오려 버티고 있는 백수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할 것.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가족끼리 한 식탁에 앉을 것. 게다가 단 한끼 식사 또는 단 한 명의 가족에게라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익힐 것 등의 보다 수준 높은 미션들을 수행해야 했다.

본인 아직은 미션 수행 중이며 불과 한달 정도의 기간이고 또 완벽히 가사노동의 부담을 적절하게 차지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가 없기 위한 인간으로서 노력 중이다. 이것은 밖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집에서는 그 진보가 세탁기 속으로 들어가는 데도 어머니나 여동생의 손을 거처야 하는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중생활이기도 하다. 본인 그것을 깨닫는데 이 책이 큰 점 심대하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이라는 페미니즘의 모토도 이로써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해가 단순한 페미니즘 답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는 평등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해방'이라는 전격적 동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인 이 책을 통해 생소한 권리 하나를 또 배웠다. 바로 '생식에 관한 자유권(reproductive freedom)' 이 권리가 가정 내에서 평등한 권력의 통합을 지향하고 사회 내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격상되는 즈음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의 선택이나 낙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상태의 하나인 주부중후군에 대한 적절한 자제가 일관된 것이다. 그랜 더 이상 일상의 반란이 아닌 일상의 보편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페미니즘의 모습이 존재할 것이다.



2탄 클리토리스 섹스와 행동촉구의 가정법

본인 또 한번 이 무더운 여름, 옥수폭포를 열러버리기 위해서 기부장성이라는 더러운 파복을 벗겨내려 독일 페미니즘의 대모가 쓴 책을 읽었다. 이 할머니 전사가 쓴 내용 중에 본인의 뒷통수를 여지없이 때린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섹스에 대한 고정 관념이었다.

기부장성 걷어내기 2탄은 클리토리스 섹스에 대한 무지를 걷어내는 것이다.

오르가즘에 대한 프로이트 할매와 알리스 슈바르츠 할매의 공방전 요새 각태일도 이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 맛하고 전정 섹스를 통해 다다른 오르가즘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듯 하다.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프로이트 할매가 말하는 절오르가즘. 오르가즘은 절에서 일어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성의 피스톤 운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성의 오르가즘 도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도달한 여성에게는 미성숙과 동성애적 도착증이라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슈바르츠 할매는 여성의 몸에서 성적 감동이 일어나는 중심은 어디까지나 클리토리스라는 것이다. 여성의 절은 창자배와 마찬가지로 감각세포가 거의 없어서 수술할 때도 마취가 필요없을 정도란다. 생리대 절 안쪽으로 탐폰을 끼워 넣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걸 여성은 알거란다. 따라서 오르가즘이 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왜곡된 규범일 뿐이며 그 규범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다.

본인에게 이 공방전은 가히 충격이었다. 여성은 남성 성기의 삽입이 없어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다? 성에 대한 기초상식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던 본인 그만 울고 말았다. 섹스는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했던 본인,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최대만족을 위해 삽입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관념에 균열이 생김을 감지할 수 있었다. 급가야 왜 페미니즘이 동성애나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예정을 표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 그것은 섹스라는 만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섹스는 상대가 여자나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또 만족을 얻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지지가 완전한 이해로 바뀌었다.

남녀의 오르가즘의 시간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그 대화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섹스를 대화가 아닌 하나의 정복이나 성적패배의 패배정도로 생각하는 남성이 아니라면 삽입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벗는게 중요하다.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클

리토리스라는 여성의 오르가즘 모티브를 알지 못한다. 그런 무지는 절오르가즘에 대한 순박한 승배를 불러온다. 여성들에게 많이 묻고 공부하자. 지배보다는 협력을 선호하는 남성이 되자. 그런 남성이 성적능력이 모자란 집쟁이라는 비난이 오면 웃자. 시몬 드 보바르가 인간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진다고 했듯이 남성도 기부장성에 길들여지고 말았다. 본인과 함께 많은 남성들이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 잠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제시한 행동촉구의 가정법인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을 적용해 본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지금 문창회관에 하울뿐인 산부인과 진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상시적인 산부인과 진료와 상담서비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투쟁하지 않았는가? 학생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에서의 콘돔제공, 성교육, 생리 및 휴식공간 확보를 부르짖지 않았는가? 백류 건물이라 일컫는 본관건물에 수도 없이 대형콘돔을 싸우며 동독금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유급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처럼, 예비군훈련 갔다면 출석 인정해주는 것처럼 월생리결석1일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말이다.

페미니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큰 울타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속으로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 양성평등한 개인을 만나는 일이다. 진보란 이름으로 노동자 계급을 만나는 것처럼, 그럴 때 개인의 존엄은 인간의 존엄이 된다. 본인 이 책들을 읽고 느낀 점, 페미니즘이 그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넓지도 좁지도 않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곧 기초적인 휴머니즘이며 인간의 숙제이다.

은밀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글 박김혜정 garu00@treechal.com

흑인 여성작가 엘리스 위커. 페미니스트 작가로 유명한 그녀의 작품이라기에 인터넷에서 재고를 뒤져서 주문했다. 은밀한 기쁨이라. 제목이 뭘게 한 기대와는 다르게 소설의 내용은 너무나 아팠다. 이 소설은 아프리카 여성 할레에 대한 내용이다. 주인공은 아프리카에서 할레를 겪고 미국에서 살다가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자신을 할레시킨 '올리사' (할레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를 살해한다. '할레'란 여성 성기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봉하는 수술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행해져왔다. 할레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의 성인식으로 할레가 치러져 왔다. 20세기 중반까지 할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다.

난 책을 읽어 내려가며 내가 온전한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작은 사실에도 감사해야 하는 여성의 역사가 너무나 아팠다. 내가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클리토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당연한 사실이 그 시대의 아프리카에 살았던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성기가 봉해지는 데서 오는 아픔과 후유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어린 여자아이에게도 할레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할레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에 있어왔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소설이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마다 화자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주인공이 겪은 일도 당시 주위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된다. 심지어 마지막 장에서는 주인공이 살해하게 되는 올리사의 입장에서 소설이 진행된다. 독자들은 올리사가 왜 그 일을 해왔으며 할레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 주인공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올리사를 죽여야만 했던 주인공도...

여성의 성은 아직도 많이 감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성의 성기의 이름인 '보지'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성적인 쾌감을 가져다주는 클리토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여성도, 이것은 결코 드문 일도 아니다. 심지어 우리 여성 성기의 역사에는 그것이 칼로 절제되었던 역사도 있었던 것이다.

여성 성기의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될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는 남성들의 뜻대로 여성의 성기가 절제되거나 그것이 왜곡되게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거울을 들고 내 클리토리스를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작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수난을 겪어왔던 여성들의 클리토리스. 우리에게 은밀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항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감사하며.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를 읽고

글 이호상 경제학과 97학번 reds187@treechal.com

흑시나 오해할 친구들에게 먼저 고백 할 것이 하나 있다. 분명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여성주의 실천을 하는 친구들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서상품권이 탕났기 때문이다.

제대 후 돌아온 학교는 너무나도 심심했다. 원래 제대를 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 라는 주위 친구들의 말에 한 가닥 위로를 삼아봤지만, 바뀌지 않은 대학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권태로움은 나에게 거대한 벽으로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다. 뭘 해야 좀 즐거울 수 있을까? 삶은 즐거움이라는 데, 나의 삶은 왜 이런 지? 살아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딱 죽어나 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났었다. 너무나도 권태로운 날이었다. 입학하고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술도 마셔 봤지만, 역시 허사였다. 언제나 혼자 쓸쓸함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씁쓸함만 다시 확인시킬 뿐이었다.

이 속에서 나의 권태에 동맹이를 던지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나온 친구들이었다. 소위 학내의 여성주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친구들, 바로 이 책의 편집인들과 총학생회 친구들이었다. 그들의 실천은 참 신선했다. 여전히 이전의 운동 방식을 고려타분하게 답습하면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 라는 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운동한다는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혹은 학교 앞 어디에서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O, K 라 손짓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의 발랄한 실천과 자신 있는 논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재미없는 대학은 싫어'라며 일상의 권태에 돌파매질을 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천에 엄청난 반대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자유게시판의 지킴이(?)들을 위시한 보이지 않는 학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주의 친구들의 실천에 가장 좋은 비판의 지점들이 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너희 실천은 잘못되었어, 학우들이 싫어하잖아." 흑시 당신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 책의 일 독을 권하고 싶다. (꼭 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주의 친구들의 생각과 실천들을 담고 있다. 고려타분하게 페미니즘이 뭐며, 가부장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 친구들과 똑같은 친구들이 90년대 대

학에서 벌여내었던 다양한 여성주의 행사들과 그들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또는 그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풀어놓고 있다. 90년대 여성주의 실천을 했던 친구들의 다양한 고민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던져 주면서 그들이 왜 이런 실천을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소위 여성주의 실천을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운동이란 단지 지식만이 아니다. 내 삶에서 출발하여 나의 육체,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으로 운동하고 자기 회생을 부르짖기 보다 자신의 욕망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성찰을 우선시 하면서 우리에게 운동은 삶이 된다." - p. 97

그래 바로 이 지점이다. 나의 절박함으로 시작되는 실천들, 나의 욕망에 기반한 실천들, 나의 일상이 왜이래? 나의 삶이 왜이래? 에이 씨발 X 같아! 라는 일상의 작은 한 부분부터 극복해 나가려는 실천들, 바로 이런 실천들이 여성주의 실천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실천을 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바로 이 땅에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숨이 막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왜 숨이 막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여자친구에게 꼭 물어보기 바란다.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며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이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성은 아니지만, 그들의 실천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고 힘을 얻었던 이유도 처음에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 '제대한 군마리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대한 성찰과 자신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운동이라는 자체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킨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도 토익점수가 먼저 눈에 아른거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천성이 움직여야만, 소리쳐야만 살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 외쳐야 한다.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리고 그 방법들은 여성주의 실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자신의 욕망에 당당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녀들이 부럽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도 외쳐보자. 우리 역시 살아있다는 흔적을 우리의 일상에 남겨보자.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신나는 커밍아웃을 해보자.

여자의 생리대, 남자의 밥

글 별리 ddosily@freechal.com

고등학교 때, 식욕이 왕성하면 나는 성별을 기준으로 배식량이 틀려지는 학교식당에서 항상 열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친구끼리 이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난 후 부반장 녀석에게 학교대표자 회의에 가서 우리의 주장을 전하게도 했던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부당함을 느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식욕이 많고, 장도 크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식욕이 왕성하고도 두꺼운 분을 주문하게 하지 않아도 양을 넉넉하게 제공하면서 왜 여자들에겐 생리대 무상지급하지 않을까? 며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모든 기준이 남자이기 때문이지,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억울하더라도 어긋나는 놈이 부담해야지, 그러나, 누가 어긋나고 싶어서 어긋나냐?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생리... 난 그다 생리양도 아주 적고, 기간도 아주 짧은 편이다. 탐폰을 쓰지 않는 나는 한번 생리할 때마다 10개 내외로 생리대를 소비하곤 한다. 생리통도 별로 없어 생리로 인해 고통받은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런 나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여성이 일생동안 생리대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숙명'을 실감하지 못할 수밖에. 요즘 한국여성민주주의에서 하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인하 운동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생각나 한번 내가 평생동안 생리대에 투자할 자본을 따져봤다. 초경을 13살에 했고, 환경(배경의 긍정적 표현이죠)을 50세쯤 할테고, 한 차례 생리하는데 4000원 가량 하는 18개들이 생리대 1묶음을 0.6개 가량 쓴다고 치고 계산해보니,

4000(생리대 1묶음 가격) * 0.6(생리대 갯수) * 37(생리하는 횟수) * 12(달거리니까)
= 1065600원

대충 계산해도 100만원이 넘는다. 내가 이 정도면, 보통의 여성의 경우 일생동안 생리대에 3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는 뜻이다. 물가인상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생리대 시장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여성민주주의에 따르면, 초경부터 원경기에 있는 1300만 여성들이 연간 사용하는 생리대 수는 23만개, 3000억 규모라고 한다. 이 정도면 티비 광고에서 생리대가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해마다 새로운 상품이 어찌 그리 번질나게도 나오는지, 그리고 광고와 신상품 개발의 부담을 누가 다 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주머니에 돈 새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보니 생리 휴가 역시 별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혹자의 말처럼 생리대의 면세는 다름 아니라 여성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라면, 이 나라는 여성을 시민으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생리대가 면세가 되나, 생리휴가를 제대로 주나, 생리통 약을 제공하더라도 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려고 하진 않는 반면, 문화적·제도적으로 모성에 대한 의무는 강요하는 경향이 심하다. 즉,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대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자금을 달고 태어난 여성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재생산되는 사회성원이 중요한 건 알면서, 사회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성원들을 단순히 애 낳는 기계로 치부해버리며, 그 기계의 모성 권리는 무시하고,

의무는 한없이 집지우려는 문화, 이게 한마디로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직업적인 성공욕구가 있는 여자에 대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애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면 "요즘 여자들"하면서 혀를 잘 자격이나 있나 싶다. 육하기 전에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도 가사나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나아가 사회성원을 재생산하는 여성의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확실한 육아정책의 확립을 국가의 힘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싶다.

그런 맥락에서 생리대 면세 운동의 요는 여자도 민주 사회 기본단위인 '사람'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도,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투쟁의 목표도 그러한 것일 게다. '건강함', '이성애자', '남자'라는 기존의 사회적 기준이 모든 '사람'을 다 껴안을 만큼 너그러운 것이 못된다면, 심지어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민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 생리대 문제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간단명료하다. 세상 모든 여성이 매달 겪는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과도한 돈을 투자해야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돕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부패, 횡령 이런 거 말고 국가가 응당 해야할 노릇이란 말이다. 공짜로 주진 못할 당장 세금을 면해주는 것 정도는 흔쾌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성의 생리혈을 담보로 한 국가의 세금수입, 이런 건 좀 웃기지 않는가? 게다가 생리대라는 생필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역진성을 해치는 것도 생리대 부가가치세 인하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하니,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군대 다녀온 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예상된다. "고작 생리대 가지고 그러냐? 우리 군대가서 생고생하고 착취당한 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암 알고 말고요, 감히 우리가 당신들의 노고를 잊을 리 있으리요,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리 뻗고 잘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한 생고생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생리대 면세를 요구해서 북의 도발이라도 부추기기도 해서 그들의 생고생을 가중시켰단 말입니까? 별 길 다 태를 걸죠, 이 양반아, 아니 좁고 생나면 당신들도 반정부 운동운동을 하시라고요, 왜 애꿎은 생리대를 들고 늘어지십니까? 예후~ 더러워라.



편집후기

지독한 여름이었다. 여름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함께해준 잡지팀들에게 감사. - 강통

원인을 알수 없는 카타르시스... 나는 그걸 느꼈다. 글 쓰는 일은 무지하게 피곤하지만 같이 하는 시간마다 묘한 흥분과 동질감을 느꼈으니, 아하~~ 우린 천재야. - 팔쥬

글쓰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답엔 글빨이 더 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TT -평상심

뜨겁고 즐겁고 잊지못할 여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마지막 여름을 뜻깊게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만납시다~~~ 정대리

제가 좋아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스토리도 겨울이 되면 점점 멋져지겠죠? 이번 헬스토리에서는 많은 활약 할게요. - 명화

편지아원모집

051-510-1924
aliockhy@freechal.com